삼선동·동소문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일러두기

인용문은 원 자료의 표기법을 살려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용문과 사진 자료의 출처는 '참고 · 인용자료' 에 수록하였다.
연속간행물은《 》, 단행본은『 』, 그 밖의 작품은〈 〉로 표기하였다.
본문에 나온 인물의 소개는 부록 인물목록에 수록하였다.
지도에는 삼선동 · 동소문동 내 거주지를 모두 표기하였다.

목차

6 마을 이야기

삼선동 · 동소문동 문화예술인
18 장우성
30 김종영
40 전광용
52 이관옥 · 한규동
64 전봉초
74 이봉수
76 정한숙
86 안동림
94 이어령
106 이생강
118 이호철

124 부록
본문 수록 인물 목록
참고 · 인용자료
조사 개요



장우성, 〈중추〉



마을이야기

혜화문 밖의 고운 모래와 가녀린 초목들이 끝없이 펼쳐진 삼선평. 곧 군대의 연무장이기도 한 평야의 뒤편에는 삼선봉이라는 산이 있어 그 아래에 있는 동네를 삼선동이라 부른다. 동 가운데에 높게 두드러진 대를 삼선대라 부르는데 높이가 수장에 달하는 소나무의 나뭇가지들이 기이하게 석대에 얽히어 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세 분의 신선이 지상세계로 내려와 꽂아 놓고 간 것이라 전해진다.

惠化門外明沙細草一望無際名曰 三仙坪 卽練武之場也坪後有山曰三仙峰峰下有洞曰三仙洞洞中有臺曰三仙坮有喬松數丈生于臺石之上杈枒奇古相傳前朝時有三仙來降而過故名云.

-「한성풍토기」, 1905.8.25 -

저자 소리 단절되니 낮잠이 무르녹고, 시흥은 넉넉해라 바위틈에 넘치구나
判斷市聲鏕晝寢 剩饒詩興漲巖幽

-「동소문 아래 윤정 효손의 집에 옮겨살다移居東小門下尹正孝孫家」-

혜화문에 올라서면 성 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삼선평의 풍경이 펼쳐진다. 멀리 동남쪽에 있는 옥녀봉의 옥녀가 천상에서 내려 온 세 신선과 함께 유유자적 노닐던 놀이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 삼선평. 세 신선이 꽂아 둔 지팡이가 기이하게 엉켜 삼선대 위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성북천이 굽이쳐 내려오며 습지를 만들고, 하늘로 뻗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름을 더해 빼어난 경치를 자랑했다. 조선전기의 문신 김종직은 시문집《점집재집 佔畢齋集 》에서 '도성 저잣거리의 번잡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풍광에 빠져 시를 저절로 읊게 하는 경치' 라 감탄하였다.
힘 있게 솟구친 북한산의 봉우리가 병풍이 되고, 낙타 모양의 나지막한 낙산 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아 저희만이 아는 숨겨진 정원처럼 자리 잡은 평원이었다. 살구꽃이 피는 봄이 되면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둘러쓴 나들이객, 풍경을 그림에 담고 시로 읊는 문인묵객들도 즐겨 찾았다.



혜화문, 1890년대

조선시대 도읍지 한성부의 경계를 둘러 방어를 위해 쌓은 한양도성은 전체 길이 18.6km나 되는 규모이다. 태조5년부터 쌓기 시작하였고, 성 안팎을 오가도록 흥인지문 · 돈의문 · 숭례문 · 숙정문(4대문), 혜화문 · 소의문 · 광희문 · 창의문(4소문)을 두었다. 성돌에는 공사를 맡은 군현이나 담당자를 새겨 넣었고, 처음 흙으로 쌓았던 평지 구간을 세종 때 돌로 쌓았다. 일제강점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여 도시가 확장, 개발되며 없어진 구간이 늘어났다. 1963년 사적 제10호로 지정, 1968년 숙정문 구간부터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1년 서울성곽에서 한양도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혜화문은 한양의 동산東山인 낙산 끝자락에 위치한 문으로 동소문東小門이라 불렀다. 동문과 북문의 사이에 세워진 사소문 중 하나로 원래 명칭은 홍화문弘化門이다. 그러나 1483년 성종 때 새로 만들어진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弘化라고 하며, 서로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종 때인 1511년 혜화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혜화문은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했던 숙정문(북대문)을 대신해 북방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쓰였다. 일제강점기 혜화동과 돈암동 사이에 전찻길을 내며 헐렸던 것이 지금과 같이 복원되었다.

혜화문과 맞닿아 있는 삼선평은 군사요충지이자 훈련장이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모일 수 있는 평원을 방어막으로, 성북천과 구릉이 도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1765년 설치한 어영청의 북창이 근처 성북동에 있어 성곽의 수비와 한성부의 안보 · 치안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후부터 도성의 치안과 방위防衛를 담당한 어영청과 훈련도감은 이곳을 주요 훈련지로 삼고 군사를 훈련시킨다.

한의운이 아뢰어 이르기를, 훈련도감 중군 서영보가 본국 군병 훈령으로 내일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삼선평으로 나가있는다 합니다.

韓義運啓曰, 訓鍊都監中軍徐英輔, 本局軍兵中旬事, 自明日限畢試閒, 三仙坪出去矣

-《승정원일기》 순조, 1816.3.21 -

삼선평이란 명칭은 1816년(순조16) 훈련도감을 이끄는 서영보가 병사들을 데리고 삼선평으로 나간다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삼선평은 창의문 밖에 있던 연융대鍊戎臺와 함께 도성 동편의 주요한 군사훈련장으로 이용된다. 봄과 가을이 되면 활쏘기, 말타기 등을 시험하는 도시都試를 열어 무관과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시험장이었다. 한편 왕과 왕세자, 무관들이 함께 모여 활쏘기를 선보이는 사회射會를 즐기는 날이면 풍악이 울리고 성대한 음식이 차려진 가운데 장부들의 활쏘기 승부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사훈련장으로 쓰이던 삼선평은 갑오개혁 이후 운동회와 각종 스포츠 경기 장소로 바뀌었다. 1896년 4월 6일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지 한 달도 안 된 5월 2일,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운동회가 삼선평에서 열린다.

예로부터 음력 3월이 되면 화류놀이라 하여 삼삼오오 짝을 지어 경치 좋은 산과 들로 꽃놀이를 갔다. 오래 묵은 때를 씻어 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봄의 기운을 받는 것이었다. 한성영어학교 대표 교사로 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영국인 허치슨Hutchison은 소풍 겸 운동회인 화류회花柳會를 열었다.

영어 학교 교사와 학도들이 이달 이튿날 동소문 밖으로 화류를 갔다니 오래 학교 속에서 공부 하다가 좋은 일기에 경쳐 좋은 데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장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이니 다만 마음과 지각만 배양 할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몸 배양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니 몸 배양 하는 데는 맑은 공기에 운동 하는 게 제일이요 목욕을 자주 하여 몸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

-《독립신문》, 1896. 5. 4 -



삼선평에서 열린 축구 경기

1906년부터 공개적으로 벌어진 축구 경기의 주된 훈련장은 삼선평 등지로, 상투에 망건, 조끼차림의 선수들이 돌이나 막대기로 표시한 골대에 공을 넣었다.

- 〈김은신의 이것이 한국최초(8) 1906년의 축구경기〉, 경향신문, 1996. 5. 2 -

연분홍색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 삼선평에는 상투와 망건, 갓을 둘러쓴 한복차림의 학생들과 구경나온 동네 사람들로 붐볐다. 당시 선보인 경기는 공 던지기, 대포알 던지기, 당나귀 달리기 등이었다. 육상경기는 300보, 600보, 1350보(단 · 중 · 장거리)로 나눠 경기를 펼쳤다. 체통을 중시하던 양반들이 뜀뛰기를 하는 모습은 여간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듬해에는 5월 1일 정식으로 '운동회'라는 명칭으로 개최하였고, 53명의 학생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각 학교에서 삼선평을 운동회 장소로 이용하여 1910년대 스물 한 번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노어학교와 법어학교, 여학교 등 학생들의 화류놀이터로도 인기 있는 장소였다. 1899년 5월에는 삼선평에서 영국인 교사의 지도 아래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오성학교의 축구경기가 벌어졌다.
가축의 방광이나 태반에 바람을 넣어 만든 공 대신 축구공이 사용되었을 뿐 제대로 된 골대도 규정도 없는 수준이었다. 1906년 3월에는 서울 삼선평에서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청년회간의 시합이 열렸다.

삼선평 일대(돈암장 옛터)는 조선시대의 의료기관인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던 곳이다. 새롭게 나라를 세운 조선은 고려시대의 구휼과 치료를 담당한 대비원을 계승하여 동서소문東西小門 밖에 활인서를 설치했다. 활인서에는 의원과 무당[醫巫]을 함께 두어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매골승埋骨僧이 배치되어 한성부와 함께 시체의 매장업무를 담당하였다. 활인서 주변으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굶주린 백성들이 모였다. 그 중 전염병 환자를 꺼려 도망가는 이도 많았지만, 지속되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활인서를 찾는 수가 더욱 늘어나 4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무당에게 부과되던 무세가 폐지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하였다. 1784년(정조 8) 이후에는 동활인서가 신당동 부근이

라 기록되어 있다.

"근래 전염병이 더욱 치열해지고 장마 또한 지리 하여서, 동활인서에서 병으로 고통 받는 자가 거의 2천여 명에 이르니 진휼하는 방도를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천막, 자리, 식량을 더 주도록 명하였다.

부제학 조복양이 아뢰기를,

"그 밖에 사사로이 장막을 나온 사람들도 4천여 명이나 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모두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라."

-「상이 희정당에 거둥하여 기청제와 진휼책, 고과에 대한 의논을 듣다」, 1662. 6. 20 -

삼선평은 조선시대 초부터 한성부 동부 숭신방(성외)에 속한 마을로 1984년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동서 숭신방(성외) 동문외계 삼선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듬해인 1911년 4월 1일 일본은 지명을 정비하며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삼선평이라 하였고, 1914년 4월 1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돈암리로 바뀌었다.

일제시기 삼선평 일대는 목장으로 이용된다. 1910~1920년대 일본인 히라야마 마사토[平山政十]가 평산목장을 운영하며 100여 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조선 왕실과 총독부 의원醫院에 우유를 납품하였다. 농촌에서 일제의 공출로 땅과 소작권을 잃은 농민들이 한양으로 올라와 도시 빈민이 되어 살 곳을 찾아 떠돌았다. 넓은 공터인 삼선평에 허름한 움막을 늘어갔다. 히라야마는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목장 근처에 마련하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벌이기도 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 드넓은 초원은 하루아침에 황폐한 부지로 뒤바뀐다. 1937년 2월 경성시가지계획 구획정리사업의 첫 사업지구로 공업지역인 영등포와 대현지구, 삼선평이 속한 돈암지구가 선정되었다. 1941년 11월에 완공된 돈암지구는 오늘날 보문동, 안암동, 동소문동, 동선동, 삼선동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



2층 한옥상가

는 시기에 '집장사' 라 불리던 주택건설업자들이 지은 도시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비 된 삼선동 일대 거리에는 2층 한옥상가가 생겨났다. 도로와 접하는 면에 상가를 열었고 뒤쪽으로 살림채를 둔 구조였다.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지은 집으로 지붕에는 기와를 얹고, 유리, 벽돌 등 새로운 자재를 사용했다. 도시 한옥과 2층 한옥상가는 근대 도시에 적응해 가는 주거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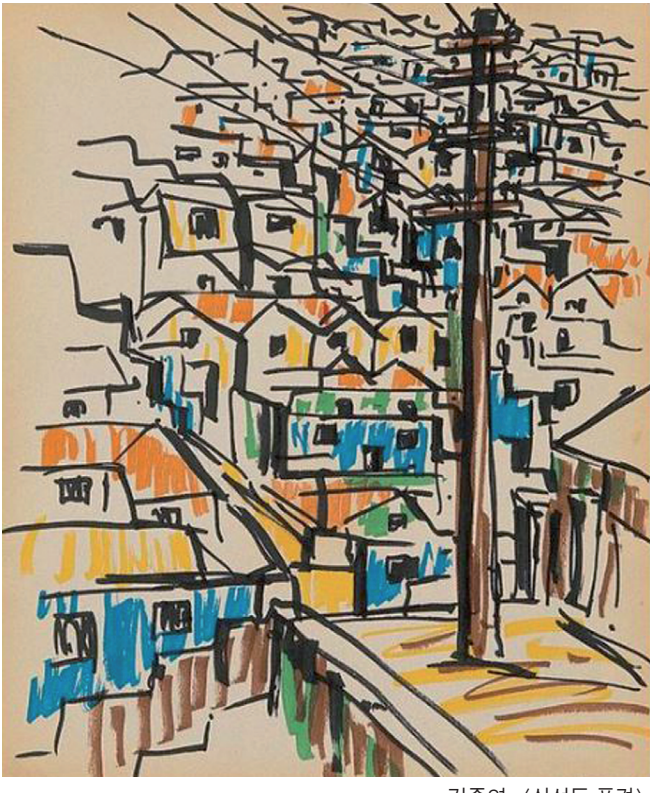
1936년 4월 1일 일제가 경성부 구역을 확장할 때 삼선평은 다시 경성부에 편입되어 돈암정이란 일본식 동명으로 불린다. 1943년 6월 10일에 서울에 구제區制를 실시함으로써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해방 후 일본식 지명을 폐지하며 1946년 10월 1일 돈암정이 돈암동으로 바뀌었고, 1949년 5월 13일 삼선동 1,2,3가, 그 후 5개동(1~5가)으로 분할되었다. 1963년 돈암동 일부를 분리하여 동소문동이라고 하였다.
삼선교는 동소문동과 성북동, 삼선동이 만나는 교차로에 놓여 진 다리이다. 혜화동 고개 넘어 삼선교와 돈암동 옛 전차 종점을 거쳐 미아리 고개로 이어지는 도로는 강북과 도심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한 성북천은 삼선교에서 돈암교로 흘러 돈암파출소를

끼고 돌아 보문동 쪽으로 흘러갔다. 개천을 따라서는 시장이 들어섰다. 1960년대부터 성북천 일부가 복개되며 그 위에 상가아파트와 함께 들어선 삼선시장이 생겼다. 성북파출소에서 성북천까지 이어지는 큰 규모인 소매시장이었다. 개천 옆으로 조그마한 철공소가 잇달아 있고, 골목 시장 안쪽으로 노점의 가판대 위로는 상점 천막이 빽빽했다. 그러나 1985년 5월 지하철 4호선 삼선-상계 구간이 부분 개통되며 상권이 돈암동으로 옮겨간다.

시원하게 펼쳐진 삼선평, 병사들의 힘찬 구령소리, 나들이객들의 웃음 섞인 소리와 경쾌한 발걸음, 운동회의 응원소리는 오래된 기록 속으로 묻혔지만, 삼선교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도 새로운 삶의 소리가 쌓여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성 밑으로 완만한 구름을 이룬 삼선동 일대는 자두와 복숭아나무로 가득 찬 과수원과 목장이 있었다. 이 목장이 폐쇄되면서 별장과 주택이 들어섰다. 이 무렵 성북동 골짜구니에도 큰 별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문안이 지척이면서도 차단되었던 개화의 물결이 흘러들었다.

- 정한숙 -



김종영, 〈삼선동 풍경〉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1912~2005

한국 문인화의 맥을 잇는 화가 장우성은 1912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났다. 세 살 되던 해 봄, 항일의병단에 자금을 지원했던 증조부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도 여주 외사리로 이사한다.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누구보다 강했던 집안어른들은 일본식 신학문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닐곱 살이 될 무렵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달리 집 가까이 살던 한학자 이광암의 글방에서 한학을 배운다. 문우文友들과 함께 시를 짓고, 책을 읽는 모임에서 옛 선비들의 풍류를 익혔다. 이때 배운 동양사상과 풍류는 훗날 그의 그림에 녹아든다.

어린시절 마을을 뛰놀며 꽃과 나무, 새와 야생동물이 자라는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수성을 키웠다. 한밤에 뜨는 달빛은 특히 장우성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날마다, 계절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달의 정취에 빠져 아무도 없는 텅 빈 밤에 한없이 달을 바라보기도 했다.
아름다움을 보는 예민한 감각은 그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집에 걸려 있던 그림과 글씨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미인도를 그려 방에 붙여 놓기도 했다. 열 서넛 무렵 놀러간 친구네 집에서 대형 초상화를 처음 보았다. 얼굴 표정, 옷 주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눈 앞에서 대하는 듯했다. 비단 위에 그려진 초상화를 본 뒤부터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화가를 '환쟁이'라 업신여기던 시절, 위당 정인보•처럼 훌륭한 한학자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 무렵 어머니를 따라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 새로운 문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시골에서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고향마을에서도 신식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자 신학문을 배우고 싶은 조바심이 일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매부에게 부탁하여 보통학교 국어독본을 얻어 독학하고, 일본어와 신문학을 익혔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일본인들이 가르치는 신학문을 몰래 공부하는 것보다는 화가가 낫겠다는 생각에 서울에 있는 이당 김은호•에게 아들을 보낸다.
당시 김은호는 화단畵壇을 이끌던 작가 중 한 명으로 그에게 배우는 제자가 여럿 있었다. 서울로 아들을 유학 보내며 아버지는 훌륭한 화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월전月田'이란 호를 지어준다. 아들이 좋아하는 달[月]과 마을 이름 '사전絲田'에서 글자를 따서 지은 호이다.

달은 어두운 밤을 대낮같이 비춰 주는 광명을 가졌고, 그 빛이 정감에 넘쳐 시인, 화가 등 예술인들과 항상 친근한 벗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청아한 밤의 정취가 누구에게나 즐겁고 반가운 존재이니 화가의 아호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밭은 꼭 농경지를 뜻하는 밭이 아니라 넓은 땅, 펼쳐진 들녘을 의미하는 것이니, 달과 밭을 곁들여 생각할 때 이 호가 갖는 풍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씀하셨다.

- 장우성, 「선친께서 지어 주신 월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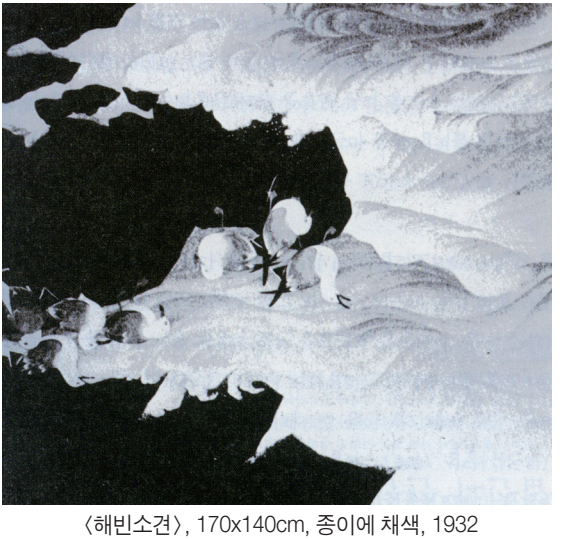
서울로 올라와 종로 단성사 뒤편의 봉익동에 하숙을 정하고,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위해 김은호의 낙청헌絡靑軒을 찾아 갔다. 당시 낙청헌에는 운보 김기창•, 현초 이유태•, 향당 백윤문• 등이 그림을 배우고 있었다. 이당 화숙은 그림을 그리는 스승을 본보기 삼아 각자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수업법이었다. 교육생들은 어깨너머 스승의 기법이나 표현 방식을 배우고 익혔다.

그림을 공부하는 한편 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던 위당 정인보에게 동양철학과 조선의 역사를 배운다. 정인보가 가르치고 가슴에 심어준 민족정신은 우리 전통 문인화의 정신을 찾아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 한국화의 바탕은 올곧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1933년 제12회 서화협회전에 글씨를 출품하여 입선한다. 이듬해 서예의 대가 성당 김돈희•가 이끄는 상서회尙書會에 참여한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한학과 서예를 배운 바탕 위에 서법을 두루 익혀 글씨를 한층 다듬어 나갔다. 이때 평생의 벗 소전 손재형•과 인연을 맺었다.

장우성은 도제식 학습방식으로 많은 젊은 화가들이 스승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 이어가는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화풍을 고민하며 연습을 거듭한다. 이당 화숙에서 공부한지 1년만인 1932년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해빈소견海濱所見〉으로 입선을 하며 주목

을 받는다. 〈해빈소견〉은 파도가 치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갈매기가 노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갈매기를 실제로 본적이 없던 장우성은 작품 구상 후 창경원 동물원에 찾아가 새를 관찰하고, 스케치를 했다. 새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스케치만 수백 장을 한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 선전 13회부터 15회까지 잇달아 〈신장新粧〉, 〈귀목歸牧〉, 〈요락搖落〉이 연이어 입선하며 호평을 받았다.



〈해빈소견〉, 170x140cm, 종이에 채색, 1932

선전 입선으로 화단에 발을 내딛은 장우성은 1936년 김기창, 이유태, 등 이당 화숙의 화우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연구단체인 '후소회後素會' 를 만들었다. 공자가 말한 회사후소[繪事後素 :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이후에 한다는 뜻으로, 본질이 있은 연후에 꾸밈이 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에서 따온 이름으로 정인보가 지어주었다.
1930년대에는 서화협회전이나 선전 등 몇몇 공모전 외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발표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후소회 회원들은 전시를 열어 화가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창립전에는 김기창, 장우성, 이유태, 백윤문 등이 출품하였고, 김은호와 소정 변관식•이 후소회 창립과 발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강제 징용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간다. 1945년 10월 서울로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서양화가 길진섭•의 소개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국악인 유기룡•의 집에 잠시 거처한다. 얼마간을 안암동에서 지낸 뒤 돈암동 삼선교 언덕배기, 성곽 바로 아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다. 집 주인은 해방 전 부터 알고 지낸 정동석이었는데, 그가 취직한 후 마련한 삼선동 집의 바깥채를 빌려 살림을 차렸다.
바로 이웃동네인 성북동에는 서양화가 김환기•, 소설가 이태준•, 백양당서점 주인 배정국• 등 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있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전통을 잇고 예술을 즐기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과 곧잘 어울렸다.
삼선동 셋방으로 이사하고 얼마 뒤, 미술평론가이자 화가인 근원 김용준•이 장우성을 찾아왔다. 우석 장발•이 서울대학교에 미술대학을 만들고 있다며 주선을 해 줄테니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일본 동경미술학교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장발은 미술대학을 만들어 미술 교육에 힘쓴 교육자이자 화가이다. 장우성은 예술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화가를 '환쟁이' 라며 낮춰 보는 선입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체계 잡힌 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우면 자연히 화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었다. 장발의 권유로 1946년 새로 생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한다.

해방을 맞고 미술 전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대학으로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방향 설정이 문제였다. 미술학부 교수들은 민족미술 건설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우리들의 전통을 어떻게 살리고 이어갈까 하는 현안 문제를 놓고 근원(김용준)과 나는 책상을 마주 놓고 앉아서 틈만 나면 이야기를 나눴다. … 이때 근원과 나는 전통을 되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새로운 시대사조를 수용하려는 데도 신경을 썼다.

- 장우성, 「한국화의 방향」 -

이 무렵 장우성은 삼선동에서 계동으로 이사한다. 월세 집을 전전하는 장우성에게 김환기는 성북동에 사둔 2층 양옥을 내어 주었다. 그러나 이삿짐을 제대로 풀기도 전에 언론인 이관구•에게 집이 넘어간다. 그 간 사정을 아는 이관구의 배려로 서울대 관사로 이사할 때까지 아래층과 위층을 나눠 생활할 수 있었다.

혜화동 195번지 관사에 살던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일찍 피난을 가지 못해 삼선동 한성여고 아래 후미진 곳에 살던 처남 집과 정동석의 집에 숨어 지냈다. 이념 대립은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 교수인민재판, 강제 납북 등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몰아치는 인민군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급히 가족을 데리고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한다.
1951년에는 이유태와 김인승•, 김원•, 김흥수• 등의 화가들과 함께 종군화가로 참여하여 전쟁의 참상을 그려 기록한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에서 지낸 3개월이란 시간이 더디고 길게 느껴져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때의 경험에서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종군 후 부산에 있던 서울대학교의 피난학교에 합류한다. 피난



부산 송도 셋방의 서울미대, 왼쪽부터 박갑성, 장우성, 장발

학교는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일본 요릿집의 방 몇 개를 빌려 마련한 열악한 교사였다. 교수들도 이곳에서 합숙하며 피난살이를 견뎠고, 생계를 잇기 위해 김세중•, 박세원•, 장운상• 등과 학생들과 함께 대한도자기회사에서 수출하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임시학교가 판잣집으로 옮겨가고 미술대학의 간판도 걸어 제법 자리를 잡아 가자 학교 일에 전념하기 위해 도자기회사 일을 그만두고 부산에 정착하여 대구, 부산 등지에서 몇 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종군화가단에 참여했던 화가들은 대구에서 〈6·25 기념전〉을 개최하고 전쟁기록화와 사진, 전리품을 전시해 전쟁의 참담함을 알리기도 했다.

어린 시절 친구집에서 인상 깊게 본 인물 초상화를 그릴 기회가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부산 피난 시절 조병옥•의 소개로 만난 권승하가 현충사 이순신 영정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한다. 초상을 그리기 전 이순신에 관한 기록을 찾아 공부하고, 후손을 만나 얼굴과 골격을 살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영정을 그린다.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의 위엄과 기개를 담아 그린 영정은 1953년 10월 아산 현충사에 봉안되었다.

인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표현하는데 능숙하여 1950년대 초 〈한국의 성모와 순교복자〉를 그린다. 이 작품은 성모마리아의 성년을 기념하여 바티칸 교황청이 개최한 국제성미술전에 출품한 성화 3부작이다. 그림 가운데 성모가 아기예수를 안고 서 있고, 왼쪽에는 여성 순교자 3인, 오른쪽에는 남성 순교자 3인을 그렸다. 한국 가톨릭 전통을 보여주려는 듯 성모와 순교자 모두 한복 입은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국의 성모와 순교복자〉, 1949



동양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월전과 제자 이열모

전쟁 후 서울로 돌아와 학생을 가르치며 전통문인화의 맥을 이어갔다. 박노수•, 박세원 등 해방 후 1세대 작가들이 장우성의 지도 아래 화단으로 진출하였다.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동료 교수이자 조각가인 김종영과 〈장우성 · 김종영 2인전〉을 열기도 했다. 벽에는 그림이 걸리고, 가운데에는 조각 작품이 놓였다. 이 전시는 동양화와 조각이 한자리에 전시된 첫 번째 사례로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1년 종로구 관훈동에 2층 양옥을 빌려 '월전화실'을 열고 작품 창작에 힘을 쏟는다. 학교는 떠났지만 한국화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이 시기 제자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교관 부인들이 세계의 가족이란 뜻의 '오환회五環會'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주한 외국인들과 교류가 생기면서 미국과 유럽의 현대미술을 알아보기 위해 1963년 7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가톨릭대 미술관전시회, 미국 국무성 화랑 초대전, 워싱턴 스퀘어 갤러리의 세계 38개국 작가 초청전시에 한국 대표로 출품하여 작품을 선보였다. 1965년에는 오환회 회원들과 함께 사단법인 동양예술학교를 설립하여 제자

들을 지도하고 작품전을 개최하여 우리 문화와 한국화를 알리기도 했다. 미국 생활 4년 3개월만인 1966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와 종로구 수송동에 화실을 마련하고 '백수노석실白水老石室'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각별하게 지낸 전각가 철농 이기우•가 하루는 술에 취해 홍이 올라 그 자리에서 당호를 새겨주었다. 주머니칼로 새겨 깊이 파이기도 하고, 새김면이 고르지도 않았지만 친구의 손맛이 멋스럽게 들어간 작품이었다.

장우성이 서울대를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은 동료 교수의 배려로 서울대 관사에서 지내지만,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어렵게 삼선동 4가 45번지에 집을 마련했다.
삼선동은 셋집을 전전하긴 했지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한동안 머문 동네이고, 가까이 살며 교유한 지인들과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삼선교 개천에서 멀지 않았던 집은 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ㅁ자 구조의 작은 단층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과 거실, 작은방 앞에 조그마한 마루가 이어져 있고, 작은 마당이 있어 몇 그루 꽃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돌을 감상하는 취미가 있어 모은 돌을 구석구석 놓고 소소하게 집안을 꾸몄다. 그러나 삼선교 주변이 개방되어 상가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복잡해지자 한적한 수유리로 이사한다.

미국에서 그린 그림 여덟 점과 귀국 후 그린 그림 스물 일곱점을 모아 연 개인전을 시작으로 실제의 경치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구도와 화법으로 새로운 문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수묵으로 선을 긋고 색채를 더한 화폭에는 시구가 함께 어우러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제2대 관장인 삼불 김원룡•은 "시서화의 3절로 이 세 가지를 겸전한 전통적 작가는 장우성이 유일하고 그로서 이 전통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이라고 평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백로, 남북분단 등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림을 발표하였다.

또한 초상화 작업을 이어나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위인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꼽힐 정도였다. 대표작으로 권율 장군, 다산 정약용,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윤봉길 의사 등이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걸릴 작품을 의뢰 받았을 때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고심 끝에 〈백두산 천지〉를 그렸다. 이때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 얻을 때라 수소문 끝에 어렵게 백두산 천지를 찍은 사진을 보고 와 길이 7미터, 높이 2미터의 대작으로 그려냈다. 작품활동 외에 홍익대학교 미술부 학장, 대한민국예술전람회 심사위원, 예술원 회원 등 화단의 중진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

1990년에는 종로구 팔판동 35-1번지에 동양미술전용 미술관인 월전미술관을 설립한다. 화실 당호는 '대나무 같이 맑고 차며, 물빛처럼 투명하고 푸르다' 는 뜻을 담아 '한벽원寒碧園' 이라 하였다. 미술관 운영과 함께 한국화단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동방예술연구회를 열어 후진을 양성하고, 정기적인 문집《한벽문총》을 발행하였다. 마음을 제대로 갖춘 후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정신과 절제된 무위사상의 동양화 정신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전미술상을 제정하였다.

동양 고유의 정신을 온전히 화폭에 구현하고, 동시대의 모습을 새롭게 담아낸 화가 장우성은 2005년 9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2년 후인 2007년, 유족에게 기증받은 작품과 소장품으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개관하여 장우성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장우성

1912 충청북도 충주 출생
1932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 〈해빈소견〉 입선
1936 후소회 창립
1946~1961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1949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최연소 심사위원 위촉, 추천작가 선정
1965 미국 워싱턴 동양예술학교 설립
1971 제16회 예술원상 수상,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1991 월전미술관 개관, 동방예술연구회 개설
2001 대한민국 문화훈장 금관장 수훈
2005 별세

우성 김종영
又誠 金鐘瑛, 1915~1982

우리나라 조각계를 이끈 김종영은 경상남도 창원 소답리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학문을 하던 사대부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웠다. 열일곱 살인 1932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3회 전조선남여학생작품전' 서예부에서 입상한다. '원정비元靖碑' 130자를 두 폭에 나눠 '안진경체' 로 쓴 작품이었다. 작품을 본 심사위원들은 중학생의 수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 그를 불러서 직접 써보게 했다.
김종영이 자라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는다면, 한 명은 아버지이고, 한 명은 추사 김정희이다. 아버지 김기호는 생각이 열려 있어 한학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 문물을 받아 들이는데 깨어있었다. 선비 집안의 장손이 유학까지 가서 조각을 공부하겠다고 할 때도 두말없이 지원하고

격려하였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재誠齋' 라는 아버지 호에서 글자를 가져와 자신의 호 '우성又誠' 을 지었다.
한편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하고,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추사 김정희•의 예술 정신을 따르고자 하였다. 추사에 대해서는 후에 현대 서양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세잔느와 견주는 글을 썼는데, '고전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종횡무진으로 풍부한 변화를 갖는 예술적 창의력과 넓은 견식은 족히 세잔느에 비교하고도 남음이 있다' 고 평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휘문고보에 입학, 평생의 은사인 장발• 선생을 만난다.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모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장발은 재능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데 적극적이었다. 장발의 권유로 졸업 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유학한다. 김종영은 인물의 묘사나 조각 기법, 인체 조각에만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학교 분위기에서 벗어나 조각의 근본에 다가가고자 서양 고전 조각과 작가들의 작품집을 탐독하였다. 고전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조각 언어로 해석한 프랑스 조각가 아리스티드 마이욜, 독일의 조각가 게오르그 콜베 등의 작품집은 조각을 공부하는 김종영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릴케의 문학과 클래식 음악을 즐겼다.

동경미술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1941년은 태평양전쟁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청년들이 군대에 강제 징집 당하는 전시戰時상황이었다. 고향에 내려가 마을 일을 보는 직책을 맡아 다행히 징용을 피하였고, 혼인을 하고 집안을 돌봤다. 그를 다시 미술계로 이끈 것은 서울대학교에 미술대학을 만들고 학장을 하던 장발이었다. 1948년부터 혜화동, 부산 송도 임시 교사校舍, 관악구 서울대 시절을 모두 거치며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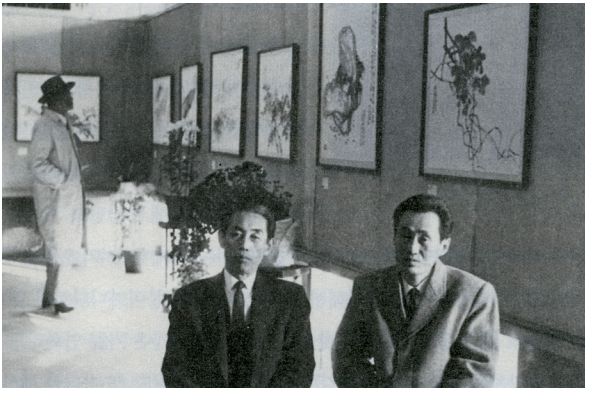
해방 후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김종영은 돈암동 집에서 숨어 지내다 고향 창원에서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 중이었지만 부산의 한 요릿집을 빌려 작은 교사를 마련한 미술대학은 신입생을 뽑고 수업을 하고, 전람회를 열었다. 재료도 부족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6 · 25동란 때 각백은 돈암동의 한옥에 살고 있었다.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각백이 나에게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움직일수록 적탄을 맞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하고 귀띔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견디다 못해서 가족을 이끌고 8월 중순께 과천으로 피난했다. 9 · 28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각백은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살려주었다고 했다. 족자 뒤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밤에 인민군들이 플래시를 들고 찾아 왔을 때 종이 한 장 사이에 두고 간이 콩알만 했다고 말했다. 그 족자에는 초서체로 '必勝(필승)' 이라고 쓰여 있었다.

- 박갑성의 회고 -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미술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김종영이었다. 1953년 영국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국제조각대회에 한국 대표로 뽑혀 석고 조각 작품을 출품했다. 대회 주제는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 52개국에서 3천여 명이 접수한 큰 규모의 국제대회였다. 김종영은 우리나라 작가 중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입선하였다. 우리나라 미술계에도 대단한 사건이었고, 그 자신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

해방 후 서울로 올라와 살던 대학 관사에는 따로 화실이 없어 창고처럼 큰 교실 한쪽 구석을 작업실로 써야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고, 작품 창작을 하는 생활은 한결같았다.



'2인전' 전시실에서 장우성과 김종영

작품 활동에 비해 개인전을 열거나 단체전에 참여하는 횟수는 아주 드물었다. 대외 활동은 1949년부터 열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총 19차례(2~21회, 14회 불참) 심사위원 활동과 예술원 회원, 서울시문화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 정도이다.

1959년 월전 장우성과 연 '2인전'은 화가와 조각가가 함께 연 전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서울대 교수로 같이 근무하던 장우성은 한국화단을 이끌던 화가였다. 국립공보관에서 열린 2인전에는 김종영의 조각 여덟점과 소묘 다섯점, 장우성의 그림 스물두 점이 전시되었다. 이후 1979년 11월에 제자들이 뜻을 모아 '김종영화갑기념전'을 열 때까지 20년 동안 개인전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김종영을 늘 '각백선생'이라 불렀다. 각백은 어느 날 스승인 장발이 던진 말이다. 그림 그리는 이를 화백畵伯이라고 하니 조각하는 이는 각백이라는 말이었다. 곧, 김종영은 조각을 빼고 말할 수 없고, 조각이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이 불각不刻의 미를 최고로 삼는 것은 형체보다도 뜻을 중히 여겼던 탓이다. 현대 조형이념이 형체의 모델보다도 작가의 정신적 태도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은 동양사상의 불각의 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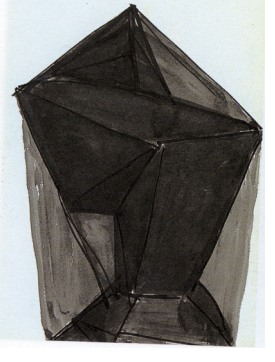
- 김종영, 「불각의 미」 -

예술이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본 그는 기술이나 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보다 정신을 수양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추사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학문과 예술을 펼쳤듯이 김종영도 평생 조각과 예술에 침잠沈潛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추상조각을 선보였다. 1956년 석고로 된 〈추억〉이라는 작품에서 보인 추상성이 2년 뒤 발표한 철조각 〈전설〉에서 이어진다. 철이 새로운 재료로 등장해 석고나 나무, 청동 등의 조각과는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종영은 조각과 함께 수많은 드로잉을 남겼다. 초기에는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을 그린 스케치가 많았다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품으로 실현되는 추상 형태의 드로잉을 그렸다. 붓, 연필, 펜 등 여러 가지 도구로 수천 장의 드로잉을 그리며 작품을 구상하고 연구하였다.
늘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찾은 만물의 원리와 조화를 작품에 담으려 했다. 그의 추상조각에서 가장 많이 다룬 재료인 나무와 돌을 쓸 때도 본연의 물성物性을 드러냈다. “무엇을 만드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더욱 열중하여 왔다. 작품이란 미를 창작한 것이라기보다 미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김종영의 작품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한한 가치' 이것은 인간의 자각이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에 무한의 가치를 생활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치는 사랑이 그 바탕이다.
예술은 사랑의 가공加功
예술은 한정된 시간에 무한의 질서를 설정하는 것
예술의 목표는 통찰이다.

- 김종영 -





〈무제〉, 1970년대 후반 | 〈Work79-7〉, 1979

서울대 교수가 되어 서울로 올라온 뒤 성북구 돈암동(현재 삼선동) 개천가에 27평짜리 집을 구해 살았다. 그런데, 1950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준 것이 잘못되어 집을 잃고 만다. 피난 후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뒤쪽에 있던 공동관사에서 7~8년 정도를 생활하다 다시 삼선동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다. 집도 몇 채 없는 언덕배기에 있는 양옥이었다. 한적한 곳이라 작업에 방해되는 것도 없고, 피해끼칠 일도 없었다.

삼선동 옛집은 손님방이 따로 없고 마루가 거실이었다. 70년대 중반쯤이었을까 지붕 처마 끝에서 담까지의 공간에다 작업실을 만들기는 했어도 실제 작업장은 마당이었다. 일곱 평쯤 되는 소위 그 작업실이란 것은 결국엔 창고요, 준비실이 되었고 언제나 초인종을 누르면 선생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 최종태, 「회상 · 나의 스승 김종영」 -



삼선동 마당에서 작품과 함께, 1975



〈삼선동 풍경〉, 1976

작품 이외의 생활은 극히 단순하였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글씨를 쓰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고, 집과 학교가 그의 공간이었다.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말하길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늘 과묵하고 차분하였다. 예술원상을 받았을 때에도 드러나길 꺼려하며 기자들의 눈을 피해 학교 구석진 곳에서 한나절을 보낼 정도였다.

김종영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와 추사 김정희라면, 곁에서 함께 해 준 사람에는 박갑성•과 제자 최종태•가 있다. 일본 유학을 함께 한 휘문고보 동기 박갑성은 서울대 미술대학에도 함께 근무하여 거의 평생을 곁에서 지냈다. '미술대 3총사' 라고 불린 김종영, 박갑성, 장우성은 학교 일을 마치면 곧잘 명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두 친구가 함께 연 2인전을 뿌듯해하며 격려하고 축하하는 평론을 쓰기도 하였던 그는 김종영이 세상을 갑자기 뜬 뒤 '우성기념사업회' 를 맡아 친구를 기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서울대 제자인 최종태는 스승 가까이에서 뜻을 헤아리고 안팎으로 일을 살폈다. 〈3 · 1운동 기념탑〉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애쓰고, 환갑전시와 회고전 준비에도 힘썼다. 1963년 국민 성금을 모아 탑골공원에 세운 〈3 · 1운동 기념탑〉은 1979년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되어 문화예술계의 큰 반발을 샀다. 1991년에서야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새 자리를 찾아갔지만, 이미 스승 김종영이 세상을 뜬 뒤였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생사의 갈림으로 헤어진 스승의 작품과 글을 모아 전시 · 출판하고, '김종영미술관' 관장을 맡아 스승을 기리는 일을 하고 있다.

1980년 정년퇴직을 한 김종영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전시를 열며 "예술이란 농부와 같아요. 가을의 수확을 위해 이른 봄부터 거름을 주고 김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듯 예술가도 수확을 잘 거둬야해요."라며 퇴직 후의 행로를 밝혔다. 그러나 작업실을 겸한 집을 짓고 작품 창작을 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된 채 안타깝게도 1년 여의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 김종영은 약 3백점에 달하는 조각과 드로잉 3천 여 점, 서예 작품 1천여 점을 남겼고,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그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뜻을 모으고 가족이 힘을 보태 2002년 종로구 평창동에 김종영미술관이 세워졌다.



김종영미술관

김종영

1915　경상남도 창원 출생
1932　동아일보 주최 전국 학생서예 실기대회 일등상
1936~1941 일본 동경미술학교 유학
1948~198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53　국제조각대회 입상
1953~1980 국전 심사위원 · 운영위원
1959　장우성과 2인전
1963　〈3 · 1운동기념탑〉 제작
1980　회고전(국립현대미술관)
1982　별세

백사 전광용
白史 全光鏞, 1918~1988

대표작 『꺼삐딴리』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백사 전광용은 191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1919년 3월 1일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해는 기미년 3월 1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때와 같다고 하여 '북청 만세동이' 라 불렀다. 독립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함경도 기질, 그중에서도 북청은 함경도 중심이었고, 고향 사람들은 이준• 열사의 정신을 높이 사는 애국심과 절개를 갖고 있었다. 마을 뒷산인 영덕산 고성터에 올라가 십리 밖 동해의 하얀 파도가 들고 나는 모습을 내려다 보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다. 입으로 글을 외우고 글자를 쓰기까지 두 해 겨울에 걸쳐 익히고, 한글 자모를 이어 배웠다. 먹을 갈고 붓을 쥐고, 바른 자세를 갖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획 순서에 맞게 쓰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한 할아버지의 회초리가 종아리를 쳤다. 천자문을 떼고 여덟 살이 되던 해 사립 우신학교에 들어갔다. 조선어 수업 외에는 모두 일본어 수업이었다. 4년제를 졸업하고 편입한 양화공립보통학교(6년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진학 시험과목에 창가 부르기가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은 일본 국가나 경축가를 불렀다. 전광용은 일본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 당시 유행하던 우리 노래 '낙화유수' 를 불렀다. 옛 성 터에 올라 바다를 보고, 진흥왕순수비 옆에서 놀며 몸에 역사의식이 배어 그랬을까. 다행히 진학은 하였으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일본어 책을 읽어야 했다. 공립학교는 일본인 교장선생님의 영향으로 일본어 교육이 더 철저했다. 그러나 전광용은 졸업 후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우리말과 글을 독학하였다. 1939년에는 〈별나라 공주와 토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해 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작품이 실렸다.

한편 다행히도 우리 마을에는 그때 우리 소설을 탐독하는 몇 사람의 문학청년이 있어서 그들의 덕으로 나는 춘원의 「무정」, 「흙」, 「단종애사」, 「마의태자」, 민촌의 「고향」, 상허의 「사상의 월야」, 심훈의 「상록수」 등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우리 문학에 눈을 뜰 수 가 있었다. … 사실 나는 사실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도 일본말 작품의 수련은 수없이 받아왔지만 우리말로 된 글은 운문체이건 산문이건 끄적거려 본 것 같은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학 졸업 후 우리말 및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이 싹트자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과 『한글갈』을 구입하여 정독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문장' 및 '인문평론' 같은 문예지가 나오자 그 월정구독의 독자가 되어 우리말 문자의 수련에 정력을 기울였다.

- 전광용, 「청년 시절을 향한 문학」 -

관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북청공립농업학교를 마친 뒤 1943년 일본으로 유학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귀국하여 경성경제전문대학에 진학한다. 이무렵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한 국대안사건國大案事件이 일어나며 학교를 자퇴하고,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다시 입학한다.

대학에서 우리나라 국문학의 기초를 닦은 이희승•과 이숭녕•, 이병기•, 양주동•, 박종화•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전국대학 국어국문학간담회 모임을 통해 평생을 할 국문학 동료를 만났다. 첫 동인 모임인 '시탑詩塔' 은 곧 해체되었지만, 1947년 만든 '주막酒幕' 동인은 평생 지속되었다.



제7회 전서울각대학 조선어 문학연구 간담회,
전광용(오른쪽), 정한모(왼쪽)

1950년에는 학제가 바뀌어 6월에 개학을 했다. 한성일보 기자로 일하며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전쟁이 터지고 몇 달 뒤 중공군이 몰려 온다는 소식에 아끼던 책이며 살림을 챙길 것도 없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피난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지만 갓 태어난 셋째 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알아보고 다녔다. 은사인 이희승 선생이 고등학교에 자리를 마련해주려 했지만 사투리를 쓰면 곤란하다는 말에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다행히 고등학교 교사 자리와 모교의 신입생 후배를 가르치는 강사 자리를 구했다. 서울대 문리대라고 해도 서대신동에 있는 판자집을 구한 교실이었고,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 상황에도 학자들이 모여 1952년 국어국문학회를 만들고 학술지를 발간했다.

서울로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며 국문학 연구를 이어나갔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흑산도」가 당선되지만 창작자로서 작품을 쓰는 것 보다 신소설연구에 힘을 쏟았다. 서구의 시각으로 구분된 근대와 현대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 시대를 구분하였다. 전광용은 신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개화기에 나온 소설을 신소설이라 분류하고 연구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이인직연구」(1957), 《사상계思想界》에 1년 동안 연재한 논문 「신소설 연구」는 국문학계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시대의식과 사회상을 소설에서 읽어내는 안목은 전광용의 작품 창작에도 발휘되었다.



1954년 9월 흑산도 답사, 뒷 줄 가운데가 전광용

《사상계》에 1962년 발표한 소설 「꺼삐딴 리」는 전광용의 대표작이다. 작가가 겪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전후 혼란기에 한 인물이 시대에 빌붙어 처세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꺼삐딴' 은 우두머리, 최고라는 뜻으로 소련군이 쓰는 '까삐단' (영어의 캡틴Captain)을 북한 사람들이 따라 발음한 것이다. 친일파, 친소파, 친미파로 시류에 따라 영달을 꾀하는 주인공 이인국을 풍자하며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으로 1962년에 동인문학상을 받는다.
학자로서 40년 가까운 삶을 살아서일까. 소설을 쓸 때도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모아 작품의 배경과 인물에 반영했다. 월간 잡지를 볼 때조차 줄을 치며 읽고, 여백에 내용을 간추려 적을 정도로 꼼꼼하게 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했다.

내가 쓴 작품에는 현지의 답사에서 힌트를 얻거나 취재된 것이 적지 않다. 〈흑산도〉는 흑산도의 학술답사에서, 〈진개권〉은 휴전선 오지에 있는 친구의 미군 쓰레기칸에서, 〈지층〉은 태백산맥의 탄광에서, 〈해도초〉는 독도 근해 어부에 대한 미군 비행기

의 무차별 폭격의 현지조사에서, 〈크라운장〉은 비어홀의 노악사에서, 〈반편들〉은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곽서방〉은 다도해 경호도의 반농 반어촌에서 각각 현지 취재한 작품들이다. 그런가 하면 〈동혈인간〉 및 〈경동맥〉은 Y여사의 모델에서, 〈주봉씨〉는 L화백의 실화에서, 〈충매화〉는 이웃 의사의 경험담에서, 〈초혼곡〉은 K씨의 소년시절 회고담에서, 〈면허장〉은 어느 소녀의 고백에서, 〈벽력〉은 거리의 샌드위치맨 광고에서, 〈퇴색된 훈장〉과 〈영1234〉는 시정의 낙수에서, 그리고 〈꺼삐딴 리〉와 근작 〈의고당실기〉는 주변에서 흩어진 군상 속에서 각각 힌트를 얻은 것이다.

- 전광용, 〈구슬이 서말이라도〉 -

전광용은 문단 선후배나 제자, 교유한 사람들에게 정 깊은 사람이었다. 문단에서 사촌사라고 부를 만큼 친하게 어울린 정한모•, 정한숙, 전영경•. 네 사람은 대학 학창시절 만든 '주막酒幕' 동인으로 만나 작가로 함께 성장하였다. 나이가 가장 많은 전광용과 막내 전영경의 나이 차이가 일곱 살밖에 나지 않고, 문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데다가 술을 즐기는 취미가 같았다. 1947년에 만난 그들은 해방 후 서로의 작품을 읽고, 낭독을 하며 문학적 역량을 키워 1955년 같은 해 모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문단 선배인 박화성•이 보기에도 '호흡과 성격과 대화가 화합되어서 물샐틈이 없을 정도'로 우애가 깊은 친구들이었다. 특히 평안북도 출신인 정한숙은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으로 더욱 애틋하고 끈끈한 친분을 나누었다.

술을 빼놓고 '주막' 동인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술과 관련된 일화가 많았다. 대학시절 학교 안 동산에 모여앉아 철마다 안주를 바꿔가며 '명성소주'를 수도 없이 비웠고, 합평회 때는 각자 정종 한 되, 양주 반 병씩은 마셔야 모임을 한 기분이 났다. 술자리에서 흥이 나면 우렁찬 함경도 사투리를 쓰며 고향 민요를 뽑았다.

합평회를 하고 술자리 후에 정한숙 선생님이 만취해서 집에 가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니가 쫓아가봐라.'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멀리서 제대로 댁으로 가시는지 뒤쫓아가요. 나폴레옹 제과점 앞을 지나 서울 음대 전봉초 선생님 댁 맞은 편이 정한숙 선생님 댁이었어요. 매번 틀림없이 집을 찾아가시더라구. 그럼 집에 와서 '제대로 들어가셨다.' 고 말씀드리곤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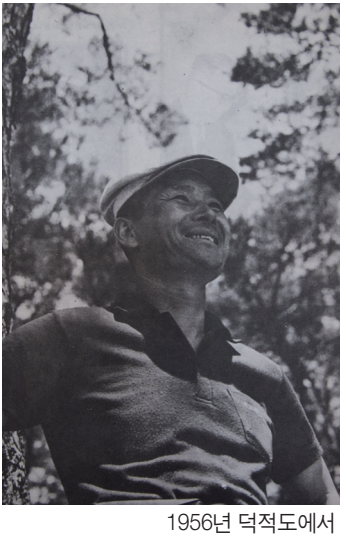
- 전광용의 아들 전호경의 말 -

등산과 테니스를 즐겨 전공이 다른 동료 교수나 사회 명사들과 같이 운동을 하며 교유하였다. 1940~50년대 전숙희, 박화성, 1970년대에는 시인 모윤숙•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린 친목모임에 참여하며 김광섭•, 김남조•, 박화성, 이헌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1963년 '국제P.E.N. 클럽' 한국본부 사무국장에 취임한 이래 국내외를 오가며 우리 문단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국제P.E.N클럽은 1921년 영국에서 시작된 문학인의 모임으로, 우리나라는 1954년 가입하였다. 국제P.E.N.클럽의 세계작가대회를 서울에서 연 1970년에는 준비사무국장을 맡았고, 아일랜드, 이스라엘, 중화민국, 스웨덴 등지에서 열린 국제P.E.N.대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창립에 참여한 국어국문학회, 한국비교문학회, 한국소설가협회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울대에 처음 개설한 '한국현대문학연구' 수업은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 줬다. 소설과 함께 연극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 학문적으로는 연극사演劇史를 고증하고, 연극제 심사위원으로 동시대 연극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북청군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때 자신처럼 남한으로 내려온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서 하듯이 정월 민속놀이로 즐긴 북청사자놀음(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의 보존에도 힘을 기울여 북청민속예술보존회를 이끌었다. 이에 더해 전광용은 삶의 흔적인 문화유산의 가치는 영원하며, 문화재는 모두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스물여덟 살에 고향을 떠나 온 전광용은 부산 피난 시절 외에는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고향에서 혼인하여 대학에 다니느라 헤어져있던 아내는 세 살배기 큰 딸을 안고 삼팔선을 넘어왔다.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한 곳은 학교와 가까운 성북구 안암동이었다. 고향 함남 북청이 아닌 안암동5가 104-80번지가 본적이 되었다.



1956년 덕적도에서

나의 고향을 나는 언제나 자랑하고 또한 북청 출신이라는데 대해 자긍을 가지기까지 한다. … 이제는 가호적이 진호적으로 변함에 따라 본적도 서울로 바뀌고 … 문서에서마저도 고향은 영영 실향失鄕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 전광용,「두고 온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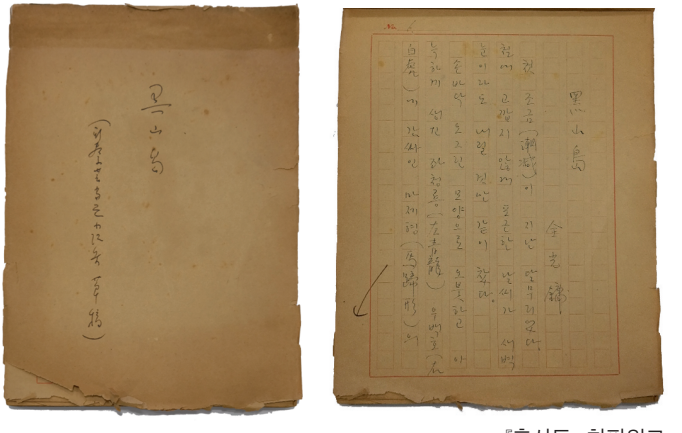
1960년대 초에 안암동에서 이사한 성북동 집 주변으로는 '주막' 동인 정한숙, 정한모, 대학 동기 한운사•가 살았다. 쌍다리 위쪽으로 '명성 주택' 이라고 불린 주택단지였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가까운 동소문동1가 140-69번지로 이사를 했다. 계단을 꽤 올라가면 이층 양옥과 단층 기와집이 있고, 마당에는 감나무와 영산홍이 있었다. 집에는 평생 연구하며 읽고 쓴 책이 가득했고, 파인 김동환•이 쓴 〈북청물장사〉에 산정 서세옥•이 그림을 그린 시화詩畵가 걸려있었다.
명절이면 지인들과 제자들이 찾아와 집이 북적였다. 세배객이 백여 명에 이르러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아내는 떡국을 끓이고 술상을 보느라 쉴 틈이 없었다. 해마다 아내는 끝물에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 대접했다. 평소 술을 즐기는만큼 제자들에게도 술 인심이 후해 고주망태 지경까지 술을 먹이기도 했다.

아이들을 삼년차로 학교에 넣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시험이 늘 한꺼번에 겹쳐, 목돈 입학금 마련으로 전화와 텔레비전을 몇 번 찾았다 샀다 … 지금껏 장서를 한 곳에 정리해 놓고 필요한 책을 척척 뽑아 볼 수 있는 서재로서의 넓은 공간을 차지해 본 적이 없다. … 서고를 따로 장만한 집으로 옮겨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책을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늘 벼르면서도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전광용,「나의 학문과 생활」-

분단으로 이별한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작품에도, 생활에도 묻어났다. 장손으로 칠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던 고향을 생각하며 추석이면 식구들과 산에 올라 북녘을 바라보았다. 자식들이 성장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도봉산 깨끗한 곳에 상을 차리고 스스로 '망향望鄕의 제례' 라고 이름 붙인 추석과 설 차례를 올렸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는 꿈을 키우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 민요를 같이 부르며 마음을 달랬다.

북쪽 가족을 그리워하는 만큼 3녀 2남을 키우는 정이 각별했다. 제자들에게는 엄한 스승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큰아들이 혼인을 해서 며느리를 들이고 집 바로 뒤 140-70번지 집을 사서 연이어 혼인한 둘째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퇴근길에 며느리의 마중을 받고 손자가 태어나 재롱을 떠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흑산도』 친필원고

우리나라 문학사 연구를 이끌고, 신소설 연구 영역을 개척한 전광용이 1988년 세상을 뜬 뒤 제자들은 그를 기려 추모문집 『한국현대작가연구』를 출판하였다. 전광용을 포함한 스물일곱 명의 작가론을 제자 이주형•, 정호웅•, 조남현•, 최원식•, 권영민• 등이 모여 엮은 것이다. 2011년에는 권두환•, 권영민, 조남현 등 서울대에 재직 중인 제자들이 『전광용전집』(전6권)을 발간하였다.

현대 문학 연구의 기반을 다진 전광용은 국문학자이자 30년 넘게 국문학계에서 후학을 키운 스승, 시대상과 작가정신을 담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 고향 북청의 문화를 잊지 않은 문화지킴이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

전광용

1919 함경남도 북청 출생
1939 동아일보 신춘문예 〈별나라 공주와 토끼〉 입선
1955 조선일보 신춘문예, 〈흑산도〉로 등단
1956 사상계, 학술논문 〈설중매〉 논문상 수상
1956~1984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1962 〈꺼삐딴 리〉, 제7회 동인문학상 수상
1970 국어국문학회 회장
1974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회장
1984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88 별세

이관옥
李觀玉, 1918~1976

우리나라 1세대 서양음악가로 성악의 길을 개척한 이관옥은 1918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희경은 일제의 지배를 반대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하와이에 병원을 연 의사였다. 이관옥이 태어나기 1년 전, 고향에서 자식을 낳고, 3·1 독립운동에 참여하려는 생각으로 귀국을 한다. 독립운동가들을 돕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중국 상해로 떠났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딸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고, 어머니의 희생과 인내정신, 아버지의 강건함을 배우며 자랐다.

먼 또 먼-그 가마귀 날개 같은 깜안 하눌을 바라보며 한없는 고독에 울었나이다. 그 검운하눌에 외로이 빛나는 한개의 별. 그 별은 나의 마음이랍니다.

- 이관옥의 글 -

이관옥은 평양 최초의 여성 사립 교육기관인 서문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1학년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주 솜씨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돋보이는 고운 목소리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음악선생이 성악을 권유한다. 서문여고보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으로 유학한다. 당당하게 수석으로 입학하여 다테마츠 후사코[立松房子]에게 4년 동안 지도를 받고, 학교 창립 이래 한국인으로는 처음, 수석으로 졸업하는 쾌거를 이룬다. 한편 벨트라멜리 요시코에게 두성발성법을 기본으로 한 벨칸토 창법을 배웠다. 일본인이었던 벨트라멜리는 이탈리아 시인과 결혼한 뒤 13년 동안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탈리아 작품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었다. 졸업연주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동경악단의 촉망받는 성악가로 이름을 알린다.

1938년 귀국하여 조선호텔에서 선배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었다. 데뷔는 성공적이었고 '맑은 목소리와 발성으로 충실하게 곡을 해석하여 깨끗한 발음으로 구현해 내는 연주자' 라는 찬사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에는 첫 독창회가 조선일보의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렸다. 부민관 무대에 서는 것은 전문 공연장도 없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던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조선일보는 성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위해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생을 초대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신인음악회를 통해 가곡 〈가곡파〉의 작곡가 김동진•, 바리톤 김형로• 등이 데뷔한다. 같은 무대에 선

이관옥을 본 관객들은 '목소리만큼 얼굴도 예쁘다' 며 관심을 가진다. 음악계에서도 젊고 실력 있는 성악가의 활동을 반겼고, 5개월만인 11월 4일 경기음악전문학교 주최로 다시 독창회를 열었다.

한편, 1939년부터 경성음악전문학원의 강사로 활동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성악 강사로 초빙했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설립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재훈•의 뜻에 공감해 생긴 지 1년이 된 교육기관에 출강하였다. 1942년까지 독창회를 열어 성악가로 경력을 쌓은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벨트라멜리 성악연구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한다. 한층 더 성장하여 돌아온 이관옥은 1945년 현제명•이 설립한 경성음악전문학교에 출강하고, 1946년 학교가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다.



이관옥 제1회독주회 초청장

해방을 맞고, 좌우의 사상대립이 양극화 되던 때, 지식인들도 지향하는 정치이념에 따라 조직을 구성했다. 음악계도 마찬가지로 이념과 지향점에 따라 세력이 나뉘었다. 이관옥은 채동선•, 이홍렬•, 한규동, 이인범• 등과 함께 민족적인 음악문화를 수립하는 목표를 세우고 '대한연주가협회' 에서 활동한다. 정치와 사상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음악 자체를 연구하고 알리려는 모임이었다.
이 무렵 성악가 이인선•을 통해 오페라가 소개되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1948년 사재를 들여 '국제오페라사' 를 창설하고, 한국 오페라의 첫 공연인 베르디의 〈춘희〉를 공연한다. 그 후 해마다 한두 편씩 오페라가 공연되었고, 1950년에는 현제명이 우리나라 첫 창작 오페라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다. 현제명이 지휘를, 유치진•이 연출을 맡았고 성악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이관옥, 이상춘•, 이인범 등이 출연한다. 곱고 아리따운 여인 춘향 역을 이관옥이 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춘향전〉은 한국전쟁 중에도 대구와 부산에서 공연되었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가 의술로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노래로 전쟁의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보듬었다.
독창회와 오페라에서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며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명성을 얻었다. 콜로라투라는 오페라 아리아에서 쓰이는 선율을 말하는데 빠른 박자,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는 양식이다. 고난이도의 다채로운 창법을 선보이려면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가곡을 가르치며 서양고전음악은 지루하고 어렵기만 하다는 인식을 바꾸려고 했다.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삼선동 집은 한양도성이 바라보이는 양옥집이었다. 전원 생활을 좋아했던 남편 한규동은 성곽 아래에 있던 집 세 채를 샀다. 너른 마당에 그네를 설치하고 벚나무, 등나무 따위를 심어 운치를 더했다. 텃밭에 채소를 길러 수확해 맛보는 재미도 있었다. 부부는 서울

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후배 음악가 전봉초에게 아랫집 한 채를 내어주었고, 윗집 한 채에는 소설가 정한숙 가족이 들어왔다. 세 가족은 서로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다. 가장 맏언니인 이관옥이 어른 노릇을 하며 대소사를 챙겼고, 손님들을 맞았다. 비슷한 또래인 아이들은 성곽 아래 넓은 공터에서 저희끼리 어울려 놀았다. 공연, 연습, 제자 양성까지 외부 활동을 하면서 6남매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남편 한규동이 있어 일과 가정 모두 이끌 수 있었다.

자녀들은 자연스레 부모의 길을 따라 음악을 전공하였다. 큰 딸은 작곡가,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성악가, 셋째 딸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1974년에는 셋째 딸의 반주로 독창회를 열어 모녀 음악회로 주목을 받았다.



삼선동 집에서,
뒷줄 왼쪽부터 이관옥, 이복련, 아랫줄 왼쪽부터 한규동, 전봉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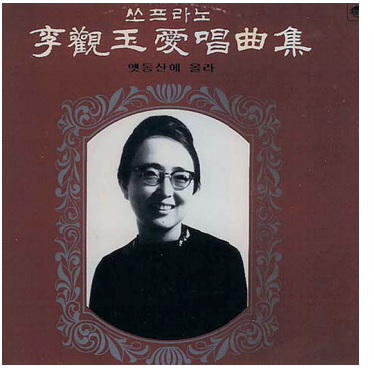
이관옥과 한규동

오페라와 서양가곡을 공연하면서도, 우리 가곡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 소록 잠들라' 는 노랫말의 〈자장가〉(김대현• 작곡, 김영일• 작사)는 이관옥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며 친숙해진 가곡이다. 고운 목소리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또, 〈고향〉에 새롭게 가사를 붙여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후 월북한 작가의 작품이 금지되어 정지용•의 시에 채동선이 곡을 붙인 원곡을 부를 수 없었다. 훌륭한 곡이 잊히지 않도록 박화목의 시 〈망향〉, 이은상의 시 〈그리워〉를 〈고향〉 곡에 붙여 불렀고, 이관옥도 노랫말을 써서 〈고향 그리워〉라는 제목을 붙이고 노래를 불렀다.
서구 클래식의 흐름을 주시하여 1961년 매노티Gian Carlo Menotti가 작곡한 오페라 〈전화〉 전곡을 번역하여 출간하고, 이듬해 서울대 음대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 교수로 학생들의 재능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열정적인 스승이었다. 남편 한규동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를 순회하며 한국 성악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1976년 세상을 떠난 이관옥은 언제나 소녀 같은 마음과 맑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노래와 함께 살다 간 성악가였다. 한국 가곡의 발전을 이끌고 클래식 음악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선구자로 인정받아 1975년 국민훈장을 받았다. 한 마리 카나리아와 같았던 고왔던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가 앨범으로 담겨 전해지고 있다.



무대에 선 이관옥



이관옥애창곡집

이관옥

1918 평안남도 순천 출생
1938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 졸업
1938 제1회 독창회 개최
1939 경성음악전문학원 강사
1942 벨트라멜리성악연구원 유학
1946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교수
1950 오페라 〈춘향전〉 주연
1961 매노티 오페라 〈전화〉 전곡 번역 출간
1975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여
1976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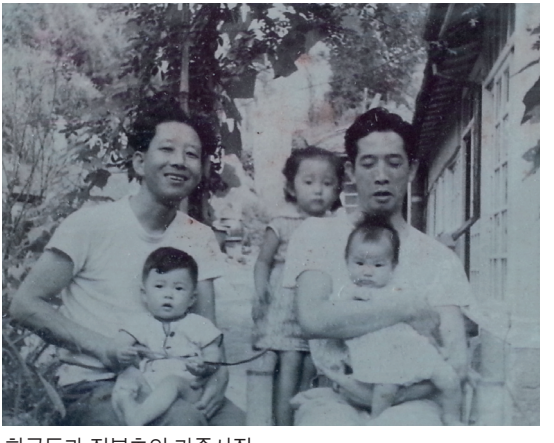
한규동
韓圭東, 1912~1996

성악가 한규동은 191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린상업학교 졸업 후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들어가지만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두었던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그만둔다. 외사촌형이자 향토가극의 창시자인 테너 안기영•에게 성악을 배우고, 1938년 스물 여섯 살 때 '안기영문화생 제1회 음악발표회'를 통해 성악가로 데뷔한다. 이듬해에는 조선일보 주최 음악콩쿨 성악부에서 입상한 뒤, 일본고등음악학교에 유학한다. 귀국 후 1944년 5월 부민관에서 제1회 독창회를 개최한다. 슈베르트의 가곡과 이탈리아의 가곡 〈마농레스코〉의 아리아 등을 선보여 다채롭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테너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방 이후 배

재중학교와 경동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순수한 음악문화의 발전과 민족음악의 수립을 위해 동료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연주가협회에서 활동한다. 한편, 한국 오페라가 막 싹을 틔우던 1949년 1월, 한국과 프랑스 친선문화단체 한불협회가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한 오페라 〈파우스트〉 공연에 참여한다. 공연을 위해 1년 여 간 대본을 직접 번역하고, 주인공 파우스트 역을 맡았다. 5월 앵콜 공연까지 한 〈파우스트〉는 우리나라 오페라 공연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1955년에는 오페라와 실내악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음악가들의 모임인 '향성회響聲會' 를 만들어 음악 연구에 매진한다. 그 결과 '한국가곡' 이란 용어를 처음 규정한 『한국가곡집韓國歌曲集』이 편찬된다. 책 출판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국가곡의 위상을 세우고 알리는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 같은 해에는 한국교육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목요음악감상회에 참여한다. 고전 클래식부터 현대 음악, 샹송,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한규동, 김동진•, 이홍렬•, 김천애• 등의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고, 곡 해설을 해주었다. 대중들에게 가곡을 친숙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던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가곡을 틀게 했다. 김대현•이 작곡한 〈자장가〉는 한국방송 심야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으로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곡이다.
한국가곡과 서양고전음악을 알리는 활동 외에도 분열된 음악계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음악가들의 개성과 활동은 존중하며 우리나라 음악계를 발전시키려면 하나의 목소리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음악가협회와 음악단체연합회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로와 젊은 음악가들을 중재하고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 그 결실로 1961년 한국음악협회가 생겼고, 한규동과 조상현•이 부이사장을, 이유선•이 이사장을 맡았다.

1957년부터 1977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와 학장을 지내고, 1974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에는 약 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아내 이관옥과 음악회를 개최하여 한국 가곡을 해외에 알린다. 한국 가곡의 태동기에 성악가와 음악교육자로서 발전을 이끈 한규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음악활동을 뒤로한 채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머물다 1996년 생을 마감한다.



한규동과 전봉초의 가족사진

한규동

1912 서울 출생
1938 안기영문화생 제1회 음악발표회 데뷔
1943 일본고등음악학교 졸업
1944 제1회 독창회 개최
1949 오페라 〈파우스트〉 주연
1955 한국가곡집 출간
1961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역임
1957~1977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학장 역임
1974 숙명여자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1996 별세

전봉초
全鳳楚, 1919~2002

첼로 연주자인 전봉초는 1919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 밑에서 지내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북창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 북창은 대동강 상류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승합자동차가 이틀에 한 번 평양을 오갈 뿐, 바깥 문화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 부모님이 하던 잡화점에 담배, 석유 등 생필품이 들어오면 집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할 정도였다.

한학과 서화에 뛰어난 외할아버지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형제들 모두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 마실을 온 이웃들에게 〈장화홍련전〉, 〈옥루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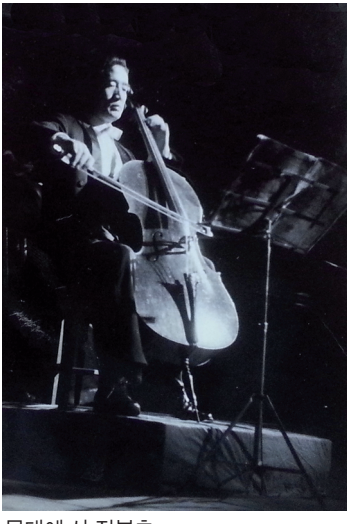
같은 이야기책을 읽어주곤 했다. 아이들도 아주머니들 곁에서 옛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을 키웠다. 전봉초는 평양으로 진학한 형들이 방학 때 돌아와 들려주는 대도시 이야기와 전화, 유성기, 사진기 등 새로운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다. 캔버스를 메고 산과 들로 나가 그림을 그리는 큰 형과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작은 형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형이 듣는 음악을 따라 하모니카로 한 음, 한 음 어설프지만 음을 이어가며 노래를 연주 해 보기도 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 아동성경학교에서 난생 처음 보는 악기인 바이올린 소리를 김동진•의 연주로 듣게 되었다. 그 선율에 반해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다. 우리나라 대표 가곡 〈봄이 오면〉, 〈가고파〉 등을 작곡한 김동진이 숭실중학교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작곡법을 배울 때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큰 형 전화황•(본명 전봉제)은 동창인 김동진에게 동생의 바이올린 강습을 부탁하였다.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 나는 장로교회와 천도교 소년회를 두루 따라 다니며 주로 민족주의 사상의 고취에 심취되어 있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먼 촌수되는 나의 형님으로 굳게 믿었던 나는 성장해서 전봉준과 같은 혁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의 일이다. 평양 숭실중학에 다니던 김동진씨가 하기夏期 아동 성경학교에 와서 바이올린 독주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되고 감격하였던 모양이다. 김씨의 바이올린 연주로 해서 나의 혁명가의 꿈은 사라지고, 어린 심금을 울려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 전봉초의 글 -

연주 솜씨가 하루가 다르게 늘며 음악에 재미가 붙어 전봉초는 음악공부를 할 수 있는 숭실중학에 진학한다. 현제명•, 안익태• 등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선구자들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학교였다. 본격적으로 바이올린과 음악이론을 배우며 두각을 나타내 2학년


무대에 선 전봉초

때는 평양방송국 개국기념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인 마스네의 〈타이즈의 명상곡〉 연주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교를 다니던 중 폐렴이 걸려 요양을 하는 동안 큰 전환점을 맞는다. 우리나라 첼로 1세대 연주자인 김태연•의 연주를 듣고 나지막하고 깊이가 있는 첼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김태연에게 2년 동안 첼로를 배우고, 전문적인 음악공부를 위해서 일본 동경제국음악학교 기악과에 입학한다.
아무도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 밖의 실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오무라 우히치[大村卯七]는 전봉초를 일본교향악단 객원 연주자로 추천했다. 다른 일본인 학생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한편 현악과 주임을 맡은 스즈키 선생이 만든 실내악단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참여하며 실내악 경험을 쌓아간다.

이 무렵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김재훈•이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전문교육기관인 경성음악전문학원을 설립한다. 독일의 전문적인 음악교육제도를 본 뜬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음악이론과 음악사, 외국어 등을 가르쳤다. 성악가 이관옥, 오경심•, 바이올린 안기영•, 이승학•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였다. 학교에서는 매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서양음악을 일반에 소개하는 활동을 펼쳤다.
1940년 개교 3주년 음악회에 연주자로 초청받은 전봉초의 연주는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연주 초청이 잇달았다. 이듬해 피아니스트 조윤옥, 바이올리니스트 안성교와 중구 태평로에 있던 부민관府民館에서 3중주 연주회를 열었다. 일본에 돌아간 전봉초는 한국인 젊은 연주가들과 실내악 그룹을 만든다. 바이올린 박민종•, 정희석•, 피아노 윤기선• 등과 곡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1943년 동경제국음악학교를 졸업한 뒤 요미우리 신문사가 주최한 전全일본신인선발연주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한다. 일본 콘서트홀의 시초인 히비야 공회당[日比谷公會堂]에서 랄로의 〈첼로협주곡〉을 연주하였다. 그러나 전문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하던 때,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될 위기에 처한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고,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건강하게 다시 첼로 연주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입대를 며칠 앞두고,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제자의 재능과 미래를 걱정한 오무라 교수는 "기량과 인품은 내 명예를 걸고 책임 질 수 있다"는 소개장을 써주었다. 만주로 건너가 쟁쟁한 실력의 일본인 연주가들이 모여 만든 신경교향악단에 입단한다. 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 단원이라 손이 얼어붙는 듯 한 하숙방에서 추위를 견디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베토벤의 〈운명〉으로 입단 심사를 받고, 다음 해 같은 곡을 연주한 차석 연주자가 된다. 첼로파트의 맨 뒷줄 자리에서 2년만에 수석 첼리스트가 되어 지휘자 바로 앞자리까지

올랐다. 교향악단 연주와 별도로 유학생들을 모아 현악 4중주단을 조직하여 실내악 활동을 이어나간다.

1945년 신경교향악단의 일본인 음악가들과 함께 만주 흑하성黑河省에 위문공연을 갔을 때였다. 8월 15일, 드디어 한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패전 소식을 들은 대다수 일본인 단원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전봉초를 경계하기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친구 임원식•에게 잠시 맡겨둔 악기를 찾으려 하얼빈으로 간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밤을 빌어 이동을 했지만 일본인이라는 오해를 받아 소련군에 끌려가고, 중국인들에게 악기와 악보를 빼앗기는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5월 월남하여 현제명과 김생려•가 주축이 되어 만든 '고려교향악단' 에 참여한다. 해방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교향악단이었다. 지휘는 계정식•, 악장은 김생려가 맡았고, 전봉초가 수석연주자 겸 기획부위원을 담당했다. 서양음악을 알리고 음악계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1년 동안 스물 네 번의 연주회를 열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단원들이 개인사정으로 악단을 떠나고, 재정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뜻을 같이하던 계정식, 이인선•, 김천애•, 김생려, 전봉초 등은 의기투합하여 1946년 10월 서울관현악단을 창립한다. 1년 뒤 서울교향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1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다. 교향악단의 수석연주자로, 독주자로 활동하며 촉망받는 젊은 첼리스트로 점차 이름을 알린다.

해방 후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서울교향악단 지역 공연 중 대구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급히 돌아온다. 그러나 이미 서울은 인민군 치하였고, 모두 남쪽으로 피난을 가느라 바빴다.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두 아이와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기도 어려웠다. 우연히 만난 친구의 도움으로 인



첫째 딸의 기념 사진, 삼선동 집에서

민군협주단에 들어갔으나 국군을 피해 인민군이 퇴각하며 가족을 서울에 남긴 채 북한까지 올라간다. 다행히 고향 근처에서 도망쳐 육군 군악학교 교관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부산으로 피난해 친척이 하는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과장을 맡고 있던 현제명•이 찾아왔다. 어려운 시기 일수록 후학을 키우고 음악가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설득에 현제명의 일에 동참한다. 10년 가까이 현제명을 가까이에서 보필하였고, 그가 세상을 뜬 뒤에는 마음 속의 스승이자 어른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국군이 서울을 되찾고, 휴전이 되며 피난민들이 고향을 찾아갔다. 그러나 삼팔선으로 나뉜 남과 북,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은 졸지에 고향을 잃었다. 전봉초의 사정을 안 성악가 이관옥과 한규동 부부는 성북구 삼선동 자신의 집 한 편을 내어준다. 성곽 바로 아래 1천 평이 넘는 터에 양옥 세 채가 있었다. 비탈진 땅이어서 계단식으로 이어진 집 중

가장 아래쪽 집이 새 보금자리가 되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로 앞뒷집으로 붙어있어 한 식구처럼 서로 오가며 지냈다. 다음해 딸 미영이 태어날 때 이관옥은 친정엄마처럼 아내의 산바라지를 해주었고, 백일 때 손수 떡을 해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1954년도에 이관옥 선생님과 남편 한기동 선생님이 워낙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 평 이상이 되는 넓은 땅이 있는데 꼭대기에요. 집은 뭐 다닥다닥이었죠. 뜰 안에 같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우리는 아랫집을 분양했어요. 아이들을 기르는데 마당에다 그네도 매고 연못도 만들고 아이들 노는 중심으로 꾸몄어요. 집 앞에는 우물이 있고 작은 개울이 흘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둘째 셋째를 낳고 살다가 그 위에 공터가 있어서 집을 짓게 되었어요. 고려대학교 정한숙 선생님네가 이관옥 선생님 옆집에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터쪽으로 올라가고 정한숙 선생님은 공터에 자리잡은 우리 집 옆에 터가 나니까 거기로 이사 오셨어요. 원래 있던 우리집은 바이올리스트 이봉수 선생님이 분양해서 왔어요.

- 부인 이복련 -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 성곽 바로 아래로 터를 사서 집을 지었다. 지인에게 설계와 건축을 부탁하여 지은 붉은색 벽돌집이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이 쓰는 방과 전봉초의 첼로 연습실을 좌우 양 끝에 두고, 가운데 거실과 부엌, 방을 둔 일자형 구조였다. 성곽이 담장을 이루고, 성곽 앞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큰 바위가 있어 산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 냉장고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시사철 차고 맑은 물이 나왔다. 담쟁이가 성곽을 타고 넝쿨져 운치를 더했고, 마당에는 아내가 키우는 꽃과 나무가 가득했다.
몇 살 터울인 이관옥 부부의 아이들과 전봉초의 아이들은 형제처럼 어울려 지냈다. 전봉초는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창덕궁이나 도봉산 등지로 자주 소풍을 나갔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재능을 타고나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 첼로, 성악을 전공하였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긴 전봉초는 배석빈, 한규동 등과 '목요회'를 만들어 목요일마다 산행을 다녔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화가 박고석•, 시인 고은•, 함께 실내악단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술자리도 즐겨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봉수는 전봉초 가족이 살던 집에 뒤이어 이사를 와 몇 년 간 이웃으로 지냈다. 연말에는 제자들이 집에 모여 즉석 연주회를 열었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실내악 활동을 한 전봉초는 부산 피난 시절에는 임원식, 윤이상• 등 젊은 음악가들과 만든 '실험악회', '푸리마 트리오', '서울실내악협회' 등 음악을 탐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음악협의회의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동양음악가에 의한 서양음악의 연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한국에서 서양음악 수준이 높아지고, 훌륭한 연주자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며칠간의 회의를 마친 후 음악회, 연주홀, 음악학교, 악단을 찾아가 유럽 음악계의 모습을 직접 체험한다. 17~18세기 바로크 음악을 중심으로 실내악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읽고 돌아와 서울대 음악대학에 실내악 과정을 개설하였다.

1965년에는 실내악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바로크합주단을 창단하여 지휘자로 단원들을 이끌었다.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몇 십 년밖에 되지 않다보니 연주자 층이 얕고, 교향악단과 독주자 중심으로 음악회가 열려 실내악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자유롭게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만큼 책임감도 따르기에 곡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연주자의 기량을 닦을 수 있고, 청중도 다양한 곡과 연주방식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실내악이었다. 각 악기의 소리를 섬세하게 다듬어 다른 악기와 조화

를 이루고, 연주자들 사이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기에 지휘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실내악 활동을 한 경험이 그대로 후학들에게 전해졌다.

연주가는 항상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위대한 작가들의 정신 세계와 통공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는 대신 또한 연주를 통하여 청중과 더불어 공감을 일으키고 만인공유의 정신적인 재산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케 한다.

- 전봉초, 「연주가의 책임을」 -

첼로를 대중에게 알리고 실내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전봉초는 독주자와 협연자, 지휘자, 교수로 평생 음악만을 위해 살며, 우리나라 서양음악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9년에는 제자 48명이 첼로오케스트라 그룹을 만들어 스승의 회갑을 축하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첼로 오케스트라 공연이었고, 30여 년 동안 1백 여 명의 첼로 연주자를 키워낸 결실이 맺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1993년에는 음악인생 50년을 결산하는 독주회를 열었다. 1948년 배재학교 강당에서 연 첫 독주회 이후 21번 째 단독 공연이자, 120번째 공연이었다. 이후 연주 보다는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음악계의 원로로서 더 좋은 음악환경을 만들고 음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힘썼으며 대한민국 예술원상,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았다. 바로크합주단은 창단 후 50년을 이어 국내 음악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서 큰 이정표를 세웠다. 2002년 전봉초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42년 전 서양 음악가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음악을 펼치고 있다.



실내악 연주

전봉초

1919 평안남도 안주 출생
1943 일본 전국 신인선발 음악회 참가
1948 제1회 독주회, 정동 배재학교 강당
1943~1945 만주국 신경교향악단
1948~1963 서울교향악단 수석연주자
1952~198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65 바로크합주단 창단
1982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
1985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1988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2002 별세

이봉수
李奉秀, 1917~1996



바이올린 연주가이다. 1917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 평양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선교사들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운다.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일본고등음악학원에 들어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지만 태평양전쟁 때 징집을 피해 1942년 만주의 신경교향악단에 입단한다. 신경교향악단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조•, 첼리스트 전봉초 등 일본에서 공부하던 이들이 건너가 활동한 곳이었다.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에 들어간다. 지휘 계정식•, 악장 김생려•, 수석연주자 전봉초 외에 이홍렬•, 정희석•, 나운영•, 임원식• 등 서양음악의 1세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계정식이 지휘자에서 사퇴하고 현제명•이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재정까지 악화되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순수한 민족음악 양성에 뜻을 같이하던 계정식, 김생려, 전봉초 등이 의기투합하여 1946년 10월 서울관현악단을 창립(1947년 서울교향악단으로 개칭)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교향악단 활동이 이어지지 못한다. 서울교향악단을 모체로 만들어진 해군정훈음악대 단원으로 편입하여 연주자로서 기량을 키워간다. 해군정훈음악대는 1954년 해군교향악단,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에 이른다. 초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악장을 맡아 우리나라 고향악단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1960년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던 중 삼선동으로 이사한다. 삼선동 집은 일본과 만주, 부산 피난시절에 동고동락하며 악단생활을 함께 한 전봉초가 살던 집이었다. 이관옥의 집에 살던 전봉초가 바로 윗 골목으로 이사하며 집이 비자 이봉수가 소개를 받아 거처를 옮겼다. 명절이나 축하 할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모였고, 아이들은 피아노를 치거나 함께 뛰놀며 어울렸다.

강사로 나가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자리 잡아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전봉초와 함께 실내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1967년에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밤' 을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바이올린 독주회를 선보인다. 1972년에는 바로크합주단 연주회에서 윌리엄스의 협주곡 D단조를 초연하는 등 새로운 음악 흐름을 주시하며 음악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한국 교향악단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바이올린 연주자와 교육자였던 이봉주는 한국근대음악의 발전에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오 정한숙
一悟 鄭漢淑, 1922～1997

1922년 11월 3일 평안북도 영변군에서 태어났다. 모란봉,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약산과 남산, 밀운산으로 둘러싸인 영변골이 고향마을이었다. 중학교 때 춘원 이광수•와 상허 이태준•의 작품을 인상 깊게 읽으며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변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강제징용을 당하지 않으려 국경 지대로 몸을 피해 방적기계회, 소학교, 곡물검사소 등에서 일을 했다. 해방 후 집으로 돌아가지만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더 이상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다.

1946년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편입하였다. '고전을 통하여 순純 한국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택한 학문이었다. 고전문



동료들과 정한숙, 뒤에서 두번째줄 맨 왼쪽

학 연구자인 구자균•,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조지훈• 등에게 수업을 듣고, 전국 대학생의 문학연구 모임에 나가 국문학 전공자들과 교류하였다. 다음해 서울대 전광용, 정한모, 연세대 전영경•과 뜻을 모아 '주막酒幕' 동인을 만들고 문학의 꿈을 함께 키운다. 대학 3학년이던 이 해 문예신보사에서 주최한 단편 현상 모집에 「황앵유랑기黃鶯流浪記」로 3등상을 받고, 1948년 3월에는 단편 「고가古家」를 《예술조선》에 발표하며 문단에 첫 발을 내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달 있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피난 행렬이 부산까지 이어졌고, 부산에서 황순원•, 김동리•, 박연희• 등 문단 선배들을 알게 되었다. 피난 중에도 글을 써 「광녀」, 「아담의 행로」, 「배신」 등을 발표했다.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문학지가 출간되고 신춘문예 공모도 재개되었다. '주막' 동인 네 명 모두 1955년 같은 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는데, 이때부터 20여 년 동안 서로 작품을 읽고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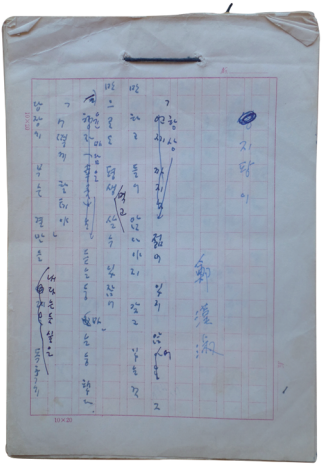
평하며 필력을 높여갔다. 정한숙은 전각篆刻 장인의 솜씨와 그에 깃든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속적 인물의 대조를 통해 사회상을 그린 「전황당인보기田黃堂印譜記」와 희곡戱曲 「혼항昏巷」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출품하여 당선된다. 합평회合評會를 한 것이 글을 꾸준히 쓰는 동기가 되고, 네 사람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

이후 다작多作 작가로 불릴 만큼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1955년 평화신문에 쓴 「애정지대」를 시작으로 「처용랑」(1958, 325회), 「바다의 왕자」 (1960, 341회), 「우린 서로 닮았다」(1963, 178회), 「이성계」 (1965, 440회) 등 20년 가까이 3~4백회가 넘는 신문 연재소설을 썼다. 장보고를 소재로 한 첫 문학작품인 「바다의 왕자」를 연재할 때는 옆 동네인 성북동에 살던 김기창이 삽화를 맡았다. 연재 분량만큼 쓴 원고를 아들을 시켜 김기창의 집에 보내면, 줄거리에 맞는 삽화를 그려 기다리고 있던 기자에게 보냈다.

연재소설을 쓰는 한편 《사상계》, 《현대문학》 등 문학잡지에 단편부터 장편까지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한다. 등단 후부터 수십 년 쉬지 않고 글을 써 1980년대에는 해마다 그 해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가 목록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인내성 있는 노력만이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줄 나는 믿는다. … 우리는 훌륭한 작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미가 있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할 수 있는 인간성이라든지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맑은 감정의 생활 속에서 쌓고 쌓은 기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정한숙, 「기수의 잠언」 -



친필원고

소설을 쓰는 것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자신이 좋아서 글을 쓰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두세 시간, 원고지 20~30매를 쓰는 습관이 들어 있었고, 연재소설을 쓸 때도 마감에 급급하지 않고 몇 십 회 분량을 미리 써놓기도 했다. 신문연재 소설이 인기 있을 때는 소설 때문에 신문 구독을 할 정도였고, 지금의 드라마처럼 독자 의견을 내용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편의 소설을 연재 형태로 나누어 선보이는 것일 뿐, 대중의 호불호가 소설에 영향을 끼치거나, 작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여겼다. 다만 모든 작품은 독자에게 읽히는 순간 독자의 것이기에 작가가 독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소설에는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물과 소재가 등장한다. 전통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며 겪는 변화와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 정치사건에 휘말리는 인물들의 모습이 소설에 담겼다. 전각가, 거문고 연주자, 도공, 판소리 명창 같은 전통을 잇는 예술인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통을 잃어가는 세태를 보여주거나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소시민들의 생활을 그려내기도 했다.
국문학 연구자이자 교수로 현대소설과 우리나라 문학사 연구와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1970~80년대에는 『소설문장론』(1973), 『한국문학의 주변』(1975), 『현대한국작가론』(1976), 『현대한국소설론』(1977), 『해방문단사』(1980) 등을 냈다.
'주막' 동인인 전광용, 정한모, 전영경과는 평생 각별하게 지냈다. 전광용과는 부산 피난 후 서울로 돌아와 종로구 원서동에 있던 휘문고등학교 교사로 함께 취직을 했다. 1957년 정한숙이 고려대 교수로 임용이 되자 정한모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쟁 중에 송도로 내려와 있던 중앙대학교에서 〈소설창작론〉 수업을 맡아 처음 대학 강단에 선 뒤 몇 년 만에 모교 교수가 된 것이다. 후에 전광용, 정한모 두 사람은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되었다.
그 무렵 전광용, 정한모와 성북동에서 이웃으로 지냈고, 삼선동으로 이사한 뒤에도 삼선교에 있던 술집에서 자주 어울렸다. '주막' 이라는 이름부터 술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동인 모두 술을 즐겼다.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는데, 오전에 만나 각자 써온 글을 읽으며 합평회를 하고,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는 술을 마셨다.


휘문고등학교 교사 시절

술이 오르면 차분한 성격인 정한숙도 목소리를 높이고, 흥이 올라 어깨춤을 추곤 했다. 평소와 다르게 당돌하고 가볍기까지 한 모습을 보며 전광용은 '발개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정한숙이 걱정되어 그가 집에 잘 들어가는지 아들을 뒤따라 보내 꼭 확인하곤 했다. 정한숙과 전광용은 홀로 월남한 실향민이자 국문학을 전공하고, 창작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공통점이 있어 누구보다도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였다.
1950~60년대는 명동에 자주 나가 지인들과 어울렸다. 소설가, 화가, 문화부 기자들 모두 늘 명동 어딘가에 모여 있었고, 다방에서, 술집에서 예술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었다. 명동 '명천옥', 종로3가 관수동에 있던 술집 '낭만'은 그의 단골이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집보다 명동이다. 다방, 빠, 선술집 어데서라도 좋다. 애인과 연인의 둘레에서 벗들과 비뚜러진 소리를 하면서 나는 산다. 이것이 나의 창작생활이다. 관찰, 구상, 정리 이렇게 되면 집필시간이란 나는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없다. 그 시간이란 아침 시간이면 족하다.

- 정한숙, 「하루 서른 장」 -

학교나 문단에서 두루두루 친분을 쌓아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김말봉•, 박계주•, 정비석•, 송지영• 등과 만든 친목 모임 '칠인회', 국어국문학회, 한국소설가협회 등 문학계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였다. 추리소설로 유명한 김내성•도 명동 시절 자주 교유하던 선배 문인이었다. 화가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 중 1963년 동아일보 연재소설 「우린 서로 닮았다」 삽화를 그린 정규鄭圭•의 작품이 집안 곳곳에 있을 정도였다. 정규는 때때로 자신이 그린 그림과 도자기를 한가득 가지고 왔고, 딱한 사정을 안 정한숙의 집에서 작품 값을 챙겨주기도 했다. 1957년 모교인 고려대 교수가 된 뒤 오탁번•, 송하춘•, 서종택•, 김인환• 등과 자주 어


진달래와 목련이 핀 삼선동 집 마당에서

울렸는데, 이들은 제자이자 고려대에서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동료 교수이기도 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한 등산과 그림 그리기는 글을 쓰지 않을 때 즐기던 취미였다. 중학시절 배운 그림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취미를 붙였다. 그린 그림을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려대 동문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다니던 교회에서 참여한 주일학교 성가대와 연극 활동 경험이 있어서인지 능숙하지는 않지만 기타 연주도 할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 온 뒤 안암동, 성북동, 삼선동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1950년대 중반에 살던 성북동 쌍다리를 지나 성곽 아래쪽 마을에서는 전광용, 정한모, 한운사•가 이웃이었다. 몇 년 간 살던 성북동을 떠나 삼선교 수도사업소 근처로 집을 옮기지만 곧 성곽 아래 성악가 이관옥이 사는 집으로 다시 이사한다. 아랫집에는 첼리스트 전봉초가 살았다. 교수로서 자리를 잡을 무렵 성곽 앞쪽으로 다시 집을 옮긴다. 서양식 집이었는데, 성곽 주변으로는 집이 드물어서 너른 공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쓰고, 안암동 고려대학교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삼선교 다리에서 15도 경사를 올라 성벽을 끼고 언덕진 곳에 동네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흔히 말하는 서울 보통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한 가구 한 주택이라기보다는 한 주택에 두세 가구가 들어사는 곳이다. … 성벽을 끼고 오르면 호젓한 산책길이다. 20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정리 되지 않은 판자촌이었지만 요즘은 아담한 동네로 바뀌어진 셈이다.

- 정한숙, 「입추가 지난 어느 날 밤」 -

1991년 대한민국예술원 원장으로 뽑혀 문화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문예진흥원장까지 맡게 되자 예술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문화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을 맡아 이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국제P.E.N.대회에 참석하며 국외교류의 중요성을 일찍 느끼고, 재임 중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교류하는 사업을 펼쳤다. 4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육자로 청소년 문화 사업에도 힘쓰며 두 사업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였다.

'죽는 날까지 창작에 열중하는 일이 작가의 사명' 이라고 말한 정한숙은 해방 후 우리 문단과 학계에 소설가로서, 국문학자로서 족적을 남기고 1997년 세상을 떠났다. 2002년 아들 정지태가 북한이 멀리 바라보이는 땅 파주 헤이리에 정한숙기념관을 세워 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며 아버지의 뜻을 잇고 있다.



정한숙기념관 (사진 문정식)

정한숙

1922 평안북도 영변 출생
1955 『황진이』 출간
1957~1988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1958 제1회 내성문학상 수상
1977 제1회 흙의 문학상(한국문예진흥원 문공부장관상)
1988 3.1 문화상 예술부문, 국민훈장 모란장
1991 문화예술진흥원 원장
1991 대한민국문예진흥원 원장
1997 별세

우당 안동림
愚堂 安東林, 1932~2014

1932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난 안동림은 목재상을 하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다. 당시로는 비싸고 귀한 유성기가 집에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체제가 공산주의로 바뀌며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난다. 이웃과 친지가 사상에 따라 갈라지고, 서로 목숨을 빼앗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1951년, 열아홉 살 때 혼자 남한으로 내려온다.

서울에 정착하여 고려대학교에 진학해 영문학 공부를 하였다. 20대에 쓴 소설 「지옥도」가 《신태양》에 실리며 문단에 등단한다. 제2의 창작

이라는 번역 작업은 영문학도이자 문학에도 재능이 있는 그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녀 어린시절 〈수호지〉, 〈삼국지〉, 〈삼총사〉 같은 외국 작품을 일본어 번역본으로 읽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배웠고, 영문학을 배우며 원어로 작품을 읽은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1964), 펄 벅, 「살아있는 갈대」(1963), 로빈 · 무어, 「실기월남전쟁」(1966), 브레이스 웨이트, 「선생님께 사랑을」(1975) 등 번역한 작품을 신문에 연재하거나 책으로 냈다. 이 무렵 시인 신동문•이 편집주간으로 있던 신구문화사의 사무실과 근처 다방에는 김수영•, 이호철, 최인훈•, 고은• 등 젊은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신구문화사는 처음으로 전국 외판조직을 갖춰 활발하게 번역전집 출간 사업을 추진할 때라 안동림도 출판사를 오가며 이들과 어울렸다.

어린 시절 가장 신기한 물건이었던 유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가르쳐 준 노래는 안동림의 음악 인생의 첫 자락이었다. 중학교 음악 선생님은 〈켄터키 옛집〉, 〈올드 블랙 죠〉, 〈대니 보이〉, 〈즐거운 나의 집〉 같은 서양 가곡과 오페라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르쳐 주었다. 이때의 기억은 서른이 넘어 다시 찾아왔고, 1960년대부터 음악에 빠져 음악을 종교처럼 여기는 삶이 시작되었다.
명동과 종로에 있던 '돌체', '르네상스' 같은 음악감상실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희귀한 음반을 소장하고 있어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다. 음악애호가들과 직업이나 나이를 뛰어넘어 감상실에서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았다.
신문사에서 일하던 1960년대 중반, 아내 몰래 돈을 아껴모아 LP 판을 사 모았다. 음악을 들으려 큰 돈을 들여 산 소니 트랜지스터를 소매치기 당하기도 했지만 음악 듣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세운상가에 모여 있던 음반가게에는 미8군에서 나온 클래식 LP 판을 쉽게 구할 수 있었

다. 보통 음반 한 장이 1,500원일 때 미8군에서 나온 8천원이 넘는 음반을 사니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번역료와 원고료는 고스란히 LP 판으로 바뀌어 집에 쌓였다.

무척 간난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1960~70년대)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온 가락이 있었다. '뜰 앞의 추초秋草도, 벌레 소리도, 인제는 다 지어서 쓸쓸하고나. 아 백국화야, 아 백국화야, 너 홀로 남아서 정답게 피었고나' 였다. 이 노래가 스코틀랜드의 민요 '더 라스트 로즈 오브 서머(The Last Rose of Summer · 한떨기 장미꽃)' 라는 사실은 훨씬 뒤에 알았다. 진한 향수와 더불어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고독이 그 노래에 묻어 내 둘레를 감쌌다. 이를 계기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노래가 꼬리를 물고 되살아났다. 그런 노래들이 내 클래식 음악 입문의 계기가 됐다.

- 안동림 -

이때부터 음반사 '성음' 에서 출판하는 음악잡지《레코드 음악》에 음반평을 실었다. 스스로 음악 전문가도, 비평가도 아니라고 밝히며, 생활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클래식부터 익숙해지고, 자신이 즐기며 음악을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3~4년 동안 연재한 글을 모아 1988년『이 한 장의 명반 클래식』을 출간했다.
260여 음반의 해설을 담고 있는 만만치 않은 분량인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되고, 첫 손에 꼽히는 클래식 입문서가 된 이유는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기 때문이다. 번역가답게 원어 발음대로 외국 작곡가와 연주자의 이름, 작품 제목을 표기했다. 우리말 표기법에 따른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과 음악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 책에는 용어 해설이나 색인을 넣어 이해를 도왔다. 베토벤, 브람스, 메시앙, 윤이상과 같은 서양 음악 작곡가와 소프라노,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 명연주자의 명반을 망라하며, 음반을 녹음하는 과정이나 특징까지 소개하였



안동림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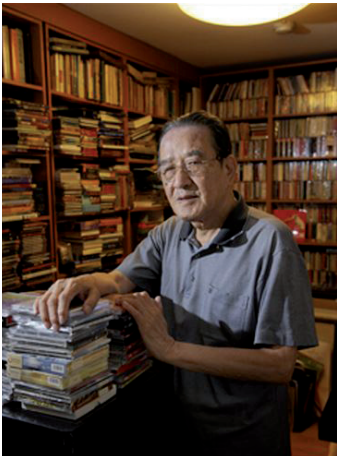
다. 26년 동안 100만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도 서양 고전 음악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다.

이어 『이 한 장의 명반 오페라』, 『불멸의 지휘자』, 『퀴즈로 배우는 클래식』을 펴냈다. 음악잡지 《객석》에 3년 동안 연재한 『불멸의 지휘자』는 일흔 일곱 살에, 『내 마음의 아리아』는 여든 살에 펴냈다. 음악은 나의 종교라고 할 만큼 음악을 즐기고 늘 음악을 가까이 즐기고 한 결과였다. 오로지 자신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음악에 대해 찾아 공부하고 생각으로 정리해 글을 써 온 그였다.

나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다. 비평가는 더욱 아니다. 그저 애호가일 뿐이다. 한 애호가로서 보고 듣고 읽은 것을 이 저 잡지와 레코드 해설에 써왔다. 이제 여기 한 권의 책으로 추려 모아 본다. 다 함께 가슴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전해져 오는 음악에 귀기울여 보자.

- 안동림, 『이 한 장의 명반』 -

안동림은 기자, 출판인, 번역가, 교수, 음악평론가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였다. 1967년《동서춘추》창간에 참여해 주간을 맡았고, 신문기자와 출판기획자로 활동하며 글과 책의 세계에 몸담았다.
또한 대학 전공을 살려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강단에 섰다. 동양고전에도 조예가 깊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장자』를 완역하였다. 중국 선禪 사상을 담고 있는『벽암록』을 번역하여 정확함과 깊이 있는 풀이로 전공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 주석을 꼼꼼하게 달아 연구자들이 원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번역한 문장을 매끄럽게 공들여 다듬었다.
한 살 차이 친구인 소설가 정인영•과는 1958년쯤 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명동에 있는 '갈채다방' 에서 만나 노년까지 지기지우知己之友로 지냈다. 2010년 두 사람이 월요일마다 만나길 1년, 고전 번역본에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만들기 어려운『장자』색인을 만들었다.『장자』완역 후 37년 만에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작업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다. 영문학자이면서 중국 고전을 번역한 한학자이고, 음악비평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하며, 고전번역과 음악평론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를 낸 저술가인 그에게 '우리시대의 르네상스인' 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1천여 장이 넘는 음반을 모으고 음악 감상을 즐겼지만 호사가처럼 값비싼 앰프나 진공관, 오디오 시설을 탐내지 않았다. 2002년 이사한 동소문동 자택 서재에는 책과 음반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손때 묻은 오디오 시설부터 컴퓨터와 mp3 플레이어까지 갖춰 놓고 있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편리함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내구성이 약한 SP판을 조심조심 다루며 음악을 듣던 때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음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음악과 예술가의 연주를 찾아 즐겼다.



클래식 음악은 기악곡과 성악곡 등 다양하지만 결국은 음악 사랑의 종착역은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만한 악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의 오페라 아리아는 그래서 예술의 극치입니다.

- 안동림 -

그가 뽑은 명반은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과 9번,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하는 '광란의 아리아' , 또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의 아리아집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쓴 글을 읽고 클래식에 입문하고, 도움을 받지만, 평가는 각 감상자에 달려, 모두에게 각자의 '명반' 이 있다고 하였다.

'어리석기가 더 어렵다' 는 중국 문인 장판교의 말 '난득호도難得糊塗' 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자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소박함으로 세상을 산 안동림. 중세 종교 음악과 성가를 들으며 명상을 즐기고, 낭만을 즐기며 말년을 보낸 그가 세상을 뜨는 마지막 길에 남긴 말은 '번거롭지 않게, 소박하나 따뜻하게' 였다.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육신이 묻히는 땅에는 안동림의 선비 같은 자취와 정신을 닮은 '무거무래無去無來-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라고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다.

안동림

1932 평양 출생
1961~ 『제삼국의 흥망』, 『헤밍웨이의 문학적 단상』, 『살아있는 갈대』등 번역
1967 《동서춘추》주간
1977 『장자』 번역
1979 롤랑 마누엘 『음악의 정신사』 번역
1982 청주대학교 부설 미국문화연구소 소장
1988 『이 한 장의 명반』 출간
1999 『벽암록』 번역
2009 『불멸의 지휘자』 출간
2014 별세

이어령

李御寧, 1933~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에서 태어난 이어령은 여섯 살 때 이미 동화를 쓸 정도로 문학에 재능을 보였다. 책을 즐겨 읽던 어머니와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책과 음악을 즐기던 형들 밑에서 상상력을 키우며 자랐다. 고향집 다락방과 우물, 장독이 있는 뒤꼍 풍경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시골의 정취가 그리울 때면 어린 시절 고향집을 떠올리곤 했다. 마을에서 고개를 넘어 십 리쯤 걸어가면 온천장이 있었다. 마을 아이들에게 온천장은 낯선 도시 사람들, 때로는 외국 사람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였다. 이어령은 익숙하거나 낯설거나 무엇이든 호기심을 갖고 보고 질문을 했다. 어른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그를 싸움닭이란 뜻의 일본어 '겐까도리[鬪鷄]' 라고 불렀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연재하던 무렵

학교 가기 전에 다닌 서당에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天地玄黃]' 는 훈장님의 가르침에 파란 하늘을 왜 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고 말한 갈릴레오의 혼잣말은 누가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듣고 지나갈 얘기에도 궁금증을 갖곤 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소년은 다락방 속에서 버려진 생활용품들을 뒤지거나 철사로 만든 자신만의 낚싯대로 장롱 밑이며 마루 밑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웠다. 궁금증은 놀이로, 놀이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를 생각하는 습관이 되었다.

한국전쟁 중 큰형을 따라 피란을 갔던 이어령은 형이 교편을 잡게 된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한다. 3학년 때 문리대학 학보 창간호에 첫 평론 「이상론李箱論」을 발표하면서 문학인의 길에 들어선다.

1956년 기성 문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스물세 살 청년의 글이 신문 문화면에 실렸다. 평론 「우상의 파괴」는 '이어령' 이라는 이름을 단번에 세


성북고등학교에서, 맨 오른쪽이 이어령, 옆이 조각가 송영수

상에 알린 글이다. 한국일보 문화부장 한운사•와 만난 것이 계기였다. 일류 대학 학생들이 사회풍조를 논하는 좌담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이 참여했고 그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이 이어령이었다. 한운사는 "한국 문단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두 낱낱이 평가할 뜻이 있냐"고 제안했고 이어령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잘못된 것도 잘 했다' 고 칭송하는 문단의 세태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그들의 문학적 재능과 업적이 아니었다. 조직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펜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당시의 문단권력이 싫었던 것뿐이다. 그의 평론은 일요일 신문의 중앙에 대서특필되었고, 기존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잇달아 글을 써내며 평론과 칼럼을 엮어 책으로 냈고, 스물여섯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신문사 논설위원이 되었다.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롯이 평론가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그를 기성 문단에서는 탐탁지 않게 보았다.
1963년 경향신문에 두 달 동안 매일 연재를 한 에세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어쩌면 한국 최초의 문화론이라 할 수 있다. '울음에 대하여', '윷놀이의 비극성', '기침과 노크', '끈의 사회', '한국의 여인들' 등 삶 속 작은 소재를 통해 우리 문화를 통찰한 이 시리즈는 큰 관심을 끌었다. 책으로 엮여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절판된 적 없이 국내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글을 쓰는 한편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첫 직장은 성북고등학교(현재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였다.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미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이어령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스승 이희승• 교수를 찾아가 고향에 생긴 대학에 추천을 부탁했다. 자신감 넘치는 당돌한 스물세 살 때 일이었다. 그러나 강의 경험이라고는 없는 졸업생이 당장 대학 교단에 설 수는 없었다. 패기보다 생활이 먼저였다. 게다가 대학 동기인 강인숙•과 혼인을 해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었다.

마침 성북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뽑았다. 혹시나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채용이 안 될까 싶어 풍채 좋고 말 주변 있는 친구에게 원서 접수를 부탁했다. 친구는 서울문리대(오늘의 서울대학 인문대) 학예부장을 맡으며 문단에 등단 신문에 이름까지 날린 이어령을 한껏 치켜세워 이 사람을 놓치면 학교로서는 큰 손실이라며 넉살을 떨었다. 친구의 활약으로 첫 직장을 구하고, 성북동에 셋방을 얻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지훈• 선생 댁이 있었다. 소설가 전광용, 같은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있던 조각가 송영수•도 성북동에 살았다.

전쟁과 피난살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무렵, 나는 단칸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썰렁한 방이기에 궁리 끝에 사온 금붕어였다. 수정구 모양의 작은 어항이었지만 그래도 용궁 속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되고 여유와 사치조차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그런데 그 어항이 언 것이다. 유난히도 큰 금붕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왔고 나는 급히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어항 속에 물을 쏟았다. … 입김 같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어항이 숨 쉬는 소리를 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살얼음 사이에서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헛본 것이 아니었다. 혹시나 했던 것인데 정말 금붕어들은 꿈틀거리더니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 이어령, 「금붕어의 아침」 -

얼마간 살던 성북동 단칸방을 떠나 근처 삼선동에 다시 셋방을 구한다. 집만 바뀌었을 뿐, 살림살이를 제대로 갖출 형편도 안 되어 궤짝을 놓고 글을 썼다. 잉크가 얼 만큼 추웠던 집은 신혼의 풋풋함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남루한 단칸방이었다.
신혼, 첫 아이, 첫 직장의 기억이 모두 담긴 삼선동 셋방시절은 애틋한 추억이 되었다. 밖에서는 「우상의 파괴」로 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킨 날카로운 평론가였지만, 집에서는 첫 아이를 안고 저녁 산책을 하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신혼 초를 보낸 성북동과 삼선동에서 첫 저서 『저항의 문학』(1959), 『지성의 오솔길』(1960)을 썼다. 다음 해 경기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며 청파동으로 이사를 한다.

남의 집에 세를 들었을망정 젊음과 신혼과 첫 직장이 있었던 삶의 스타트라인 출발점이 되었던 삼선동 성북동 일대는 어디를 가도, 내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거기 자석처럼 내를 붙들어 매는 엥카(닻),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닻을 드리우면 그곳이 하나의 생존의 공간이 되듯이 나에게는 충전점이 된다. 닻을 떨어뜨린 그런 곳이 바로 삼선동이다.

- 이어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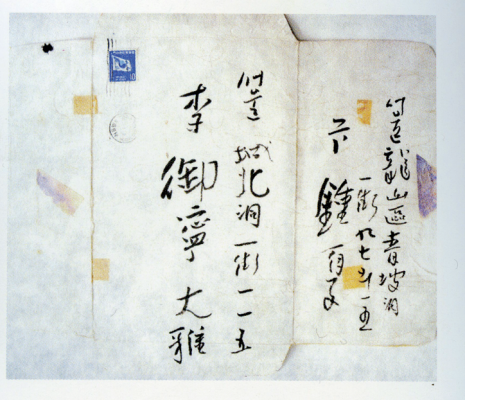
문학으로 사회를 통찰하고, 비평으로 문학을 꿰뚫어보던 그는 1972년 《문학사상》을 창간한다. 1958년 시사 잡지 《새벽》에 최연소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전혀 새로운 도전은 아니었다. 주요 일간지의 논설과 칼럼, 평론과 에세이, 소설 등 다방면의 글을 쓰는 작가이자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인 이어령의 저력은 잡지에 그대로 담겼다. 고전과 현대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작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외 문학 소개와 해외 석학 인터뷰, 신인 공모 등 문학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노릇을 해냈다. 또, 문인들의 초상화를 표지로 내세워 《문학사상》에 개성을 입혔다. 이어령은 1985년까지 권두 칼럼을 맡아 잡지의 색깔을 분명히 전했다.

이 무렵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성북동으로 집을 사서 다시 돌아왔다. 십여 년 전처럼 단칸 셋방이 아닌, 목조 이층집이었다. 문단과 언론 안팎의 활동이 무르익어 갔다. 젊은 시절 문단 선배의 실명을 걸고 날이 선 비평을 했던 것처럼 시인 김수영•과 신문 지면에서 논쟁을 벌인다. 이어령은 정치권력에 눌리고 권력에 휩쓸려 가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숨죽여 사는 유신시대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다. 김수영과 논쟁을 벌이기 전 반공법 필화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소설가 남정현•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당당히 검사와 맞서 그를 변호하였다.

1970년대 초,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국의 신화』부터 「내일의 한국인을 위한 에세이-아들이여 이 산하를」까지 그 시대의 지성으로서 시·공간을 아우르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5.16혁명이 일어나자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쓰던 그의 글이 검열에 걸려 누더기 글이 되는 무참함을 겪기도 한다.

1982년에는 1년 간 동경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어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쓴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일본문화계에 큰 충격을 주고 베스트셀러가 된다. 곧 한국말로 번역되어 국내에서도 또 한 번 화제가 된다. 문학과 사회, 산업, 자연,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일본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분석하였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역작으로 1994년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꼽은 100년 동안 출간된 일본·일본인론 명저 10선에 들기도 했다.

신혼시절 얼어 죽을 뻔한 물고기 일화가 50여 년 후에 생명자본주의에 관한 저술의 시작을 열 듯, 이어령의 글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탁월함이 있다. 1988년,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장 큰 국제행사인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자로 행사를 준비할 때도 그 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화가 변종하가 보낸 연하장 봉투, 성북동1가 115번지 주소로 보낸 것이다.
변종하는 이어령이 쓴 소설이 원작인 영화 《장군의 수염》의 미술담당을 맡으며 알게 되었다.

올림픽을 할 때인데, 퇴근해 집에 돌아오던 길에 성북동 언덕에 있는 우리 이층집에 뽀얗게 안개가 껴 있었어요. 야~ 신기하다. 왜 언덕 위에 안개가 껴있나? 그랬더니 소독차가 와서 약을 뿌리고 갔다고 해요. 마침 올림픽 폐회식 장면에 인공 달을 만들어 띄우고 떠나가는 배의 공연을 해야 하는데 안개를 만들 수가 없었지요. 잠실 운동장이 넓어 드라이아이스로는 불가능해서 고민중이었던 것이죠. 그때 아! 소독차 저걸 가져다가 뿌리면 되겠구나! 소독차를 두 대 빌려다가 운동장 안쪽을 돌면서 소독약 대신 향수를 넣고 연기를 뿌리니까 갑작스레 안개가 생기고, 한 5~6분이면 다 사라졌어요. 그때 그게 성북동에 그 높은 집에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그 환상적인 명장면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 이어령 -



올림픽 후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자신을 "새로운 집을 지으러 가는 목수일 뿐"이라고 표현하였다. 집을 짓는 목수처럼 기초를 다지고 네 기둥을 세우겠다는 뜻이었다. 10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문화의 집'을 짓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까치전화'를 만들었다. 2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까치전화는 하루에도 7백여 통이 넘게 올 정도였다. 우리 것을 찾고, 국민 모두 문화를 즐기는 생활 속 문화운동을 펼쳤고, 1993년에는 우수한 전문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운다.

이어령은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문화를 이끌어 갔다. 1999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로,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조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문화주의를 주장하고 '창조학교'까지

만든다.
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 '디지로그'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살리고 보존하는 '이야기 박물관' 을 구상하였다. 시집 올 때 가마 속에 넣어 온 요강에 담긴 기억, 어린 시절 친구들과 고기를 잡고 놀았던 호숫가에 대한 추억…, 이 모든 것을 우리 문화자산과 역사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1년에는 평창동 자택에 아내 강인숙과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영인문학관을 열었다. 자서전을 쓰거나 자신의 기념관을 만들기 보다는 우리 문단을 돌아보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든이 넘은 지금도 집필과 강연, 그치지 않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어령의 서재에는 3만여 권의 장서와 컴퓨터 7대, 고전부터 가장 최신의 정보가 공존한다. 실행 명령어를 외워 입력하던 1980년대 컴퓨터부터 음성인식이 되는 모바일 기기까지 IT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얼리어답터 Early Adaopter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지성' , 평단에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이어령은 21세기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성의 길' 을 열어주고 있다.



영인문학관

이어령

1933　충청남도 아산 출생
1960 ~ 1972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논설위원
1966 ~ 1989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4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2001 ~ 중앙일보 고문
2005 ~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한국측 조직위원장
2011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001　영인문학관 개관
2009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설립

죽향 이생강
竹香 李生剛, 1937~

죽향 이생강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한과 흥이 담긴 민속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대금 연주가이다. 본명은 이규식李圭植으로 1937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생강生剛은 일본인에게 지지 않는 굳은 의지와 기개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새로 지어준 이름이다. 그가 처음 악기를 만진 것은 다섯 살 무렵이다. 어린 나이에 몰래 일본으로 도망쳐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임을 속이고, 일본인의 양아들이 된 아버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단소로 달래곤 했다. 이생강은 아버지의 시름어린 표정이 싫어 재롱을 떨며 단소 부는 흉내를 냈다. 작은 손으로 단소를 잡고 부는 맵시가 여느 아이들과 다르고 소리도 곧잘 냈다.

피리가 불기 싫어 고향을 떠난 아버지이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아들의 재능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직접 아들의 손에 맞는 악기를 만들어 주었고, 재미를 붙여가며 '아리랑' , '도라지' 와 같은 우리 노래를 가르쳐 줬다. 하루는 집 근처에 있던 음악원에서 일본식 퉁소인 사쿠하치[尺八] 선생을 만나게 된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피리를 불기가 어려웠을 법도 한데, 자신 있게 소금小琴을 불었다. 뜻밖의 실력에 놀란 선생이 사쿠하치를 건네주자 어린 아이의 손가락으로 구멍이 채 가려지지 않는데도 기지를 발휘해 제법 소리를 따라 냈다. 이생강의 음악적 재능을 본 선생은 일본 음악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 무렵 곧 일본이 패전해 해방을 맞을 것이라 예감한 아버지는 1943년 먼저 부산으로 건너간다. 호적제도가 바뀌는 때 등록을 하면서 이생강의 출생년도도 5년 늦은 1942년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온 가족이 귀국하여 모아둔 돈으로 부산 보수동에 일본인이 버리고 간 빈 집을 헐값에 사서 정착한다. 부산 생활은 가족 모두에게 낯설었다. 아이들은 일본 사람이냐며 돌을 던지기도 하고 따돌렸다. 서툰 우리말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간식을 나눠 먹으며 말을 배우고 친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산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에서 벌어온 돈과 재산을 손가락질하고 친일파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다. 일본에서 배운 자동차 기술로 트럭 열여덟 대를 두고 운수업을 하는 아버지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초리와 도적 때들에게 시달려 결국 외가가 있는 포항으로 이사하였다.
이생강은 수산물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 장날이면 장터에서 피리 솜씨를 뽐내 주목을 끌었다. 어린 아이가 부는 피리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흥겨워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연주를 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즐거웠다. 흥이 난 사람들이 쌈짓돈

을 꺼내 쥐어주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니 불쌍히 여기는가 싶어 속상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뿌듯해 했다. 돈을 줄 만큼 아들의 실력이 좋아 연주를 잘 들었다는 의미의 답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들의 스승을 찾아 전국을 누볐다.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까지 간 길에서 애타게 찾던 첫 번째 스승을 만난다. 1947년 8월, 전주역 앞에 머물며 트럭 위 건어물 상자에 앉아 태평소를 불고 있던 어느 날 대금산조의 명인 한주환•이 우연히 이생강을 보게 된다. 한주환은 대금산조에 판소리기법을 도입하여 대금산조의 체계를 세운 박종기•의 계보를 잇는 명인이었다.

내 11살 때 일이에요. 도포를 입었는데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그게 딱 사무라이처럼 칼이 길단 말이야 대금이에요. 대금을 허리에 찼어요. 그래 난 칼 인줄 알았지. 이제 일본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영화의 무사들 사무라이. 인제 제일여인숙이라고 하는 덴데. 거기에 옛날 전주역은 풍남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용케 돈이 있어 아버지가 조그만 방을 얻어서 한주환 선생님을 모시고 21일간 산조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 이생강 -



8살 때 형과 함께

예향藝鄕 전라도, 산조 음악의 중심지에서 일생의 스승을 만나 대금을 배운다. 길에서 스승을 만나고 길에서 연주를 하며 나날이 실력을 키워 나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한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피난민이 모여들어 쉽게 만날 수 없던 음악,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인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스승 한주환도 있었다. 이생강에게는 피난지 상황이 음악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루에도 7~8명을 찾아다니며 음악을 배웠고, 스물 세 명이나 되는 선생님을 만났다. 산조와 같은 민속악은 궁중행사에 연주되었던 정악과 달리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이 축적되어 온 음악이었다.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민중을 통해 구전 해 온 음악이기에, 각 지방의 삶의 방식과 이야기, 어투가 음악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특색을 보였다.
다른 이들은 한 가지 악기와 한 지역 음악을 배울 때, 이생강은 모든 부는 악기와 각 지역 음악을 두루 익힌다. 음악이 가장 발달한 남도 음악을 배울 때는 판소리 스승까지 찾아가 남도 음악의 본류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 가장 작은 악기인 단소부터 퉁소, 소금, 피리, 태평소, 대금까지 하나씩 연주 악기를 넓혀나갔다. 악보도 없이 스승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머릿속으로 외우고 연습을 거듭해 자신만의 소리로 만들었다.

국제연합군(UN)이 참전하며 낯선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예술이 그들과 함께 물밀 듯이 들어왔다. 문화사절단 활동으로 유엔군의 위문공연에서 무용 반주를 하던 그는 무용수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독주를 맡았다. 참전국의 민요와 팝송, 재즈를 익혀 국악기로 연주를 해 인기를 끌었다. 7음계 구성의 서양악을 5음계 악기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극복하고, 서양악기가 내지 못하는 감성까지 담아냈다.

명창 박동진•은 국악기로 서양음악을 연주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이생강을 두고 '크로스오버의 창시자' 라 평가하였다.
한편 전쟁이 길어지며 야시장에서 단소, 대금, 피리 등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아버지를 도와 수금收金을 하러 전국을 다녔다. 몸은 고달팠지만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음악이 다르다는 배움을 직접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1955년 서울로 올라 온 이생강은 홍릉에 거처를 정하고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마련했다. 시장에 있으면서도 악기 연습을 하고, 국극이나 무용극의 반주 자리가 날 때면 무대에서 연주를 하였다. 또, 한주환의 주선으로 무용가 강선영•의 집과 해금산조와 피리시나위의 명인 지영희•의 집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교류한다.


프랑스 세계민속음악제, 1960년

1960년 5월,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민속음악제'에 한국민속예술단의 최연소 악사로 참여한 것이다. 당시 참가작품은 조택원•, 백성규• 공동각본의 무용극 〈춘향전〉이었다. 강선영, 김순성과 같은 당대의 유명한 무용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배우 안나영•이 주인공을 맡았다.

공연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건강문제로 십여 분 공백이 생겼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생강이 기지를 발휘했다. 유엔군 위문공연 때 경험을 살려 대금 산조로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공연을 했던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되어 막힘없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낯설었던 외국인들은 구성진 대금 소리에 매료되어 박수와 찬사를 쏟아냈다. 다음날 신문에는 춘향전에 대한 평가보다 이생강의 연주와 대금산조에 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대금 독주자의 길을 걷게 된 그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 공연을 포함하여 50여 개국의 초청을 받아 순회공연을 다니며 우리 소리의 존재와 가치를 알렸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냐 하면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 중국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악인 궁중 음악을 했더라면 중국서 넘어온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민속악이라는 것은 지방의 사투리와 삶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미있는 거죠. 산조라는 것은 무궁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엮어서 흘러내려오는 흐름이 그 끝이 없으니까요.

- 이생강 -

'대나무가 본향에 제대로 서 있어야 본연의 소리를 낸다' 는 뜻인 죽향竹鄕은 스승 한주환이 지어준 호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제자가 세태에 흔들림 없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나무 죽竹을 호에 붙여주었다. 후에 '대나무의 향기가 바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는 뜻을 담아 고향 향鄕을 향기 향香으로 고쳤다.

호 죽향은 한주환 선생님이 지어졌고 대 죽竹 자에다가 시골 향鄕자 인데요. 요즘은 시골 향자를 안 쓰고 향기 향香자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대나무가 제 자리에 있고 변함이 없다하였지만. 나는 음악은 하다보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향기라는 것은 그 풍향에 따라서 들리는 분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죽향竹香 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어요.

- 이생강 -

이생강은 '대중없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는 생각으로 국악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고민하였다. 먼저 친근한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방송 · 영화 · 드라마 · 연극 · 무용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민요와 가요, 재즈, 팝송에서 동요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대금을 연주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악을 고수하는 국악인들에게 전통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럴수록 자신의 이름처럼 더욱 굳세게 의지를 펼쳤다. 무엇보다 외래문화가 급격하게 밀려들어오며 우리 것을 등한시 하는 풍조에 휩쓸려 국악이 잊히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었다.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겪으며 그 고통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음악이, 우리 소리가 다시 위상을 찾는 날이 올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대금은 어떠한 가락도 멜로디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악기에요. 그리고 같은 곡이라도 똑같이 불지 않고 부는 방법을 달리하면 또 다른 곡이 되죠. 결국 우리만의 매력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확신이 있었어요.

- 이생강 -

1996년 대금연주의 대가로 인정받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종로에 전수소를 두고 대금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쉽게 우리 음악을 가르쳤다. 대금 산조는 전라도 진도의 박종기•가 처음 시작하여 한주환을 거쳐 이생강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시나위와 판소리 영향으로 생긴 기악곡인 산조는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각 악기의 특성과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다채롭게 연주된다. 이생강은 스승 한주환의 산조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장단을 넘나들며 70여 분에 달하는 산조를 연주한다.







대금 연주 음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종목은 대금이지만 부는 악기는 모두 섭렵하였고, 독주자 보다 무용 반주자로 먼저 시작한 인연이 있어 국악 전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국악교육을 위한 민속악 교본(단소, 대금), 『알기 쉬운 국악이야기』, 채보집, 〈대금산조〉, 〈살풀이〉, 관악기 5종을 연주한 다악연주집 〈풍적〉 등 수십 종의 대금 음반을 낸다. 〈춤의 소리〉는 장단과 춤 종류에 따라 수천 종의 반주곡을 녹음한 것으로, 안무가가 원하는 대로 반주음악을 골라 쓸 수 있게 만든 앨범이다. 전통가무악의 발전을 위해 그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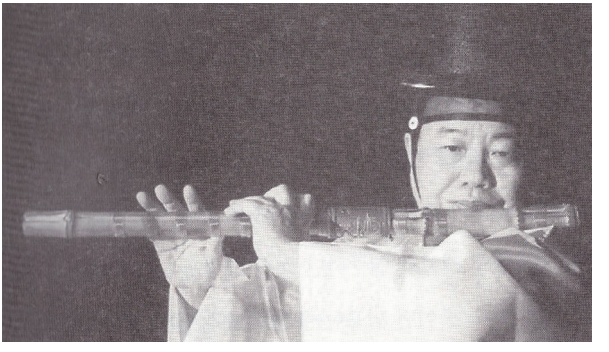
1997년, 혜화문 건너편 성곽아래 삼선교에 집을 마련하였다. 큰 바위 위에 지어진 2층 집과 뒷집을 사서 바위를 평편하게 다듬고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다. 종로에 있던 전수소도 삼선동 집 근처로 옮겼다. 20여 평 남짓한 연구소 벽면에는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가 담긴 상장과 사진이 빼곡했다.

한 해 100여 회 공연을 하면서도 연주 장소와 관객에 따라 매번 다른 연주를 하는 힘은 국악과 양악,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장인匠人 기질에서 나온다. 삼선동으로 이사한 이후 이생강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협연을 활발히 펼친다. 1997년에는 소리꾼 장사익•, 피아니스트 임동창•과 함께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여 피아노와, 사물놀이, 대금산조 등 분야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목포의 눈물', '소양강 처녀' 등 트로트를 재즈연주가인 신관웅•이 편곡하고, 이생강이 대금으로 연주한 앨범 〈희망가〉를 발표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와 협연한 공연에서

몇 년 전 맞은편 아파트로 이사하고, 대금전수소를 성북동으로 옮겼다. 아들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로 뒤를 잇고, 손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국악 집안이 되었다. 수많은 제자들과 수십 종의 책과 음반이 이생강의 국악 인생의 보람으로 남았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악기를 처음 잡았을 때 느꼈던 마음과 우리 음악을 제대로 알리려는 열정을 가진 채 제자를 가르치며 연주를 하고 있다.



대금을 연주하는 이생강

말하자면,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호흡을 멈추면 세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금을 연주하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금은 제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연주를 해서 녹음하기 때문에 잠잘 때에도 머리맡에 대금을 놓고 자요.

- 이생강 -

이생강

1937 일본 동경 출생
1943 단소를 배우기 시작
1945 부산으로 이주
1960 프랑스 파리 세계민속예술제 참가
1965 임춘앵 여성창극단 음악악장 전국순회공연
1968 멕시코 올림픽 민속예술제 참가 공연
1977 제1회 대금산조 독창회
1988 88올림픽 폐회식 대금연주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지정

견산 이호철
見山 李浩哲, 1932~

한국전쟁, 남북관계에 문학의 뿌리를 내린 작가 이호철은 1932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원산중 · 고등학교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서툴게나마 글을 쓰기 시작했고, 괴테, 셰익스피어 등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며 문학의 폭을 넓혀 나갔다. 주인공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언젠가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키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인민군으로 동원되어 눈앞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충격과 공포, 전쟁의 상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그 경험은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국군포로가 되어 북송되던 길에 천만다행

으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소문으로 피난 대열에 섞여 부산으로 내려온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두 노동자, 국수공장 노동자, 미군부대 경비원으로 일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일기를 쓰고, 소설을 지었다.
횡보 염상섭•에게 자신이 쓴 단편 「오돌할멈」을 보여주는 기회가 우연히 생겼고, 소질이 있어 보인다는 칭찬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는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부산의 한 피난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황순원•의 도움으로 《문학과 예술》에 「탈향」을 발표한다.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점점 옅어져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실향민의 애환을 자신의 경험담으로 풀어나간 「탈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오상원과) 만난 것은 1956년 겨울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의 주황색 파일오바 차림을 지금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서로 어울리게 되면서 삼선교에서 둘이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고향이 평북 의주였고, 모친에 두 형님도 같이 월남 해 와, 모친과 형님들은 용산 해방촌에 거처를 잡고 있었다. … 그러다가 오상원이 결혼하게 되어 나 혼자서 삼선동의 그 방을 쓰다가 정종화와도 잠깐 같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정종화는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생이었다. 그런 어느 날, 부산에서 올라온 그의 동생이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러 상경했다며, 며칠 동안 그 좁은 하숙방에서 셋이 같이 먹고 자기도 했었는데, 물론 나는 그런 일이 일일이 기억해 둘 리가 없이 까맣게 잊어 먹고 있었다.

- 이호철, 「기기묘묘한 만남들」 -

이 무렵 이호철은 오상원과 같이 삼선교 한성여고 앞에서 잠시 하숙을 했다. 1956년 「나상」으로 추천이 완료되어 소설가로 등단하고, 황순원의 주선으로 출판사 광문사에 입사하여 문단활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호철

나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사표를 냈고, 그 동문 친구는 자기 뜻대로 사표를 내던진 나를 이끌고 돈암동, 지금의 성신여대 앞의 한옥 문간방 하나에 하숙까지 잡아 주었을 뿐 아니라, 넥타이 매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의 지시를 좇아 을지로 입구 미양사라는 양복점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료마에 양복까지 한 벌 맞추어 입었다. …

그 동향 동문을 앞세우고 문성여중 이사장을 찾아 나섰다가 이건 또 웬 환란인가, 지금의 조선호텔 앞 샛길에서 내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붙들리며,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더라. 너 오늘 잘 만났다"라는 말과 함께 끌려가는 꼴을 멍하게 쳐다보는 신세로 떨어져야 하였던 것이다.

- 이호철, 「첫 취직」 -

문단에서 활동한지 60여 년 동안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탈향」은 이호철을 대표적 분단작가로 자리 매김 시켜준 작품으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1960년에 개최된 판문점 회담에 참관하며 북한 기자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쓴 작품 「판문점」을 포함해 「소묘」, 「파열구」 등 전쟁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섬세하기 그려내었다.

분단의 아픔과 자유가 없는 나라의 국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호철은 '유신독재' 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며 옥고를 치루기도 한다. 또한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글에 담으며 현실문제에 조금 더 다가간다. 자신이 제면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시민」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사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서슴없이 펼친다.

이호철이 남긴 250여 편의 글 속에 담긴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했던 삶이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단상을 읽어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을 창작하고 있다. 2006년부터 분단문학포럼 주최로 〈이호철 소설 정기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종영, 〈동소문 고개〉



본문 수록 인물 목록

강선영(姜善泳) 1923–
무용가. 경기도 안성 출생.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예능보유자, 국립무용단 단장,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제14대 국회의원, 태평무전수관 이사장, 한양대.세종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강인숙(姜仁淑) 1933–
문학평론가. 함남 이원 출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영인문학관 관장, 『한국현대작가론』, 『자연주의 문학론』, 『거울의 해시계』 등

계정식(桂貞植) 1906–1960
성악가. 평양 출생. 한국오페라 개척자, 1948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직접 번역 한국초연, 1953년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활동 한국민요 번역 소개

고은(高銀) 1933–
시인. 전북 군산 출생.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회장, 민족문화작가회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만인보』, 『이중섭평전』, 『고은전집』 등

구자균(具滋均) 1912–1964 一梧(일오)
국문학자. 개성 출생. 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 고전국역위원회 위원, 아세아문제연구소 위원 역임, 『조선평민문학사』, 『춘향전』, 『국문학사』 등

권두환(權斗煥) 1947–
국문학자. 경북 출생. 서울대 교수, 한국시가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 역임, 『고전시가』, 『시조의 발생과 기원』,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등

권영민(權寧珉) 1948–
국문학자. 충남 보령 출생. 서울대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 한국현대문학학회 회장 역임, 『한국근대문학과 시대정신』,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국문글쓰기의 재탄생』 등

길진섭(吉鎭燮) 1907–1975
서양화가. 평양 출생. 조선조형예술동맹 부위원장,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정물〉, 〈소녀〉, 〈원주 풍경〉 등

김광섭(金珖燮) 1905–1977 怡山(이산)
시인. 함북 경성 출생. 중앙문화협회의 창립,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자유문학가협회 위원장 역임, 《자유문학》 발행, 『동경』, 『해바라기』, 『성북동 비둘기』 등

김기창(金基昶) 1913–2001 雲甫(운보)
한국화가. 서울 출생. '바보산수', '바보화조'라는 독자적 예술세계 개창, 〈세종대왕상〉, 〈태양을 먹은 새〉, 〈청산도〉 등

김남조(金南祚) 1927–
시인. 경북 대구 출생. 한국시인협회 회장 ·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정념의 기』, 『사랑 후에 남은 사랑』, 『가난한 이름에게』 등

김내성(金來成) 1909-1957 雅人(아인)
소설가. 평남 대동 출생.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 『마인』, 『백가면』, 『진주탑』 등

김대현(金大賢) 1917-1985
작곡가. 함남 서호진 출생. 한국음악협회 부회장,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역임, 〈자장가〉, 〈들국화〉, 〈새해여 솟아라〉 등

김돈희(金敦熙) 1871-1937 惺堂(성당)
서예가. 충남 당진 출생. 서화협회 회장, 조선미술전람회 서부 심사위원 역임, 안진경체의 명필, 〈문간공한장석묘갈〉, 〈출사표〉, 『서의 연원』 등

김동리(金東里) 1913-1995
소설가. 경북 경주,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예술원 회장 역임, 소설집 『무녀도』, 『역마』, 『등신불』 등

김동조(金東兆) 1929-2010 효담
작곡가, 바이올린. 인천 출생. 부산교향취주악단 단장, 〈관현악 조곡 1번 두메〉, 〈환상곡 노동의 아침〉 〈피콜로와 4개의 플루트를 위한 5중주〉 등

김동진(金東振) 1913-2009
작곡가. 평남 안주 출생. 만주 신경교향악단 바이올린 연주자,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 역임, 가곡 〈봄이 오면〉, 〈조국찬가〉, 〈심청전〉 등

김동환(金東煥) 1901-미상 巴人(파인)
시인. 함북 경성 출생. 동아일보 · 조선일보 기자 역임, 『국경의 밤』, 『북청 물장수』, 『우리들은 칠인』 등

김말봉(金末峰) 1901-1962
소설가. 부산 출생. 애창가곡 〈그네〉 작사. 『카인의 시장』, 『화려한 지옥』, 『장미의 고향』 등

김생려(金生麗) 1912-1995
작곡가 · 바이올린. 평북 영변 출생. 빅타레코드사의 전속악단 바이올린 주자, 고려교향악단 악장,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한국음악가협회 중앙위원, 경희대학교 음악과장, 예그린악단 대표 역임

김세중(金世中) 1928-1986
조각가. 경기 안성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역임, 〈자매순교자〉, 〈십자가〉, 〈최후의 심판도〉 등

김수영(金洙暎) 1921-1968
시인. 서울 출생.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활동, 태평양, 평화신문 근무, 민중시의 길을 개척, 『달나라의 장난』, 〈풀〉, 〈사랑의 변주곡〉 등

김영일(金榮一) 1914~1984
아동문학가. 황해도 신천 출생. 동요 〈반딧불〉로 1934년 등단, 아동극단 '호동' 조직, 제1회 대한민국아동문학상 수상, 동시집, 동화집 다수 발간, 〈자장가〉(김대현 작곡) 작사

김용준(金瑢俊) 1904-1967 近園(근원)
미술사학자, 수필가. 경북 선산 출생. 동국대학교 교수, 평양미술대학 교수 역임, 『근원수필』, 『조선미술대요』, 『고구려고분벽화 연구』 등

김원(金原) 1912-1994
화가. 평양 출생.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미술협회 회장 역임, 〈금강산 전경〉, 〈한강 공사장〉, 〈김원 화집〉 등

김원룡(金元龍) 1922-1993 三佛(삼불)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평북 태천 출생. 2대 국립박물관장,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고고학회 미술사분야 개척자, 원삼국시대라는 용어 사용

김은호(金殷鎬) 1892-1979 以堂(이당)
한국화가. 인천 출생. 조선미술전람회 초대 작가, 수도여자사범대학 명예교수 역임, 〈이충무공상〉, 〈신사임당상〉, 〈춘향상〉 등

김인승(金仁承) 1910-2001
서양화가. 경기 개성 출생. 장미화가 · 모란화가, 대한민국미술협회 이사장, 국제조형미술협회 한국위원장 역임, 〈촉석루〉, 〈소녀〉, 〈들장미〉 등

김인환(金仁煥) 1946-
시인.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교수, 『상상력과 원근법』, 『기억의 계단』, 『한국문학이론의 연구』 등

김재훈(金載勳) 1903-1951
바이올린 연주가, 작곡가. 함남 흥상 출생. 경성고등음악전문학원 설립, 합창곡 〈추억〉, 바이올린 독주곡 〈비가〉 등

김정희(金正喜) 1786-1856 秋史(추사)
학자, 화가. 충남 예산 출생. 조선 순조 때 문신으로 유학과 고증, 서화와 전각에 능하였음, '추사체'를 완성, 저서로 『완당척독』, 『담연재시고』, 『완당선생집』, 작품으로 〈세한도〉, 〈부작란도〉 등이 전함

김천애(金天愛) 1919-1995
성악가. 평남 강서 출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1942년 전일본신인음악회에서 부른 《봉선화》가 국민 애창가곡이 됨. 서울교향악단 단원

김형로(金炯魯) ~1950 월북
성악가-베이스 바리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교수, 고려교향협회 회원, 서울 교향악단 활동 오페라 〈파우스트〉, 〈춘향전〉 출연

김태연(金泰淵) ~1948 월북
첼리스트. 경성후생실내악단 단원

김환기(金煥基) 1913-1974 樹話(수화)
추상화가. 전남 신안 출생.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 홍익대학교 교수, 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항아리와 매화〉, 〈항아리와 여인들〉, 〈달과 산〉 등

김흥수(金興洙) 1919-2014
서양화가. 함남 함흥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펜실베니아대학교 미술대학 초빙교수 역임, 〈나부군상〉, 〈군동〉, 〈전쟁과 평화〉 등

나운영(羅運榮) 1922-1993
작곡가.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음대 학장, 한국동요동인회장,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한국성음악협회장 역임, 가곡 〈접동새〉, 〈달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등

남정현(南廷賢) 1933-
소설가. 충남 서산 출생. 1957년 등단, 저항 문학 추구, 『너는 뭐냐』, 『굴뚝 밑의 유사』, 『허허선생』 등

모윤숙(毛允淑) 1910-1990
시인. 함남 원산 출생. 1948년 제3차UN총회 한국 대표로 참가, 《문예》 창간, 1971년 공화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1991년 금관문화훈장, 『빛나는 지역』, 『정경』, 『풍토』 등

박고석(朴古石) 1917-2002
화가. 평양 출생. 산의 화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장, 한국미술협회 운영자문위원 역임, 〈외설악〉, 〈만장봉〉, 〈도봉산〉 등

박갑성(朴甲成) 1915-2009
화가. 충북 옥천 출생. 서울대 교수 · 미술대 학장, 김종영기념사업회 회장 역임, 『한가한 사슴』,『두가지 고독』, 『소크라테스 평전』

박노수(朴魯壽) 1927-2013 藍丁(남정)
동양화가. 충남 연기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비마〉, 〈수하〉, 〈선소운〉 등

박동진(朴東鎭) 1916-2003
국악인_판소리. 충남 공주 출생. 중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예능보유자. 조선가무단, 국립국악원 활동, 1997년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설립

박민종(朴敏鍾) 1918-2006 松韻(송운)
바이올린 연주가, 작곡가. 개성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음대교수, 한국음악학회 회장 역임, 〈연가곡 안개〉, 〈연가곡 꿈〉, 〈꿈〉 등 작곡

박세원(朴世元) 1922-1999 心耕(심경)
동양화가. 평남 개천 출생.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협회 고문 역임, 〈천불동〉, 〈청산백수〉, 〈폭포〉 등

박연희(朴淵禧) 1918-2008
소설가. 함남 함흥 출생. 『백민』, 『자유세계』, 『자유문학』 등의 잡지사에서 활동, 『홍길동』, 『환멸』, 『고목』 등

박종기(朴鐘基) 1879–1941
대금 연주가. 대금산조의 창시자. 전남 진도 출생. 1929년 대금 독주를 녹음(일본 콜롬비아, 일축조선소리반)한 것이 최초의 대금 산조라고 전함. 1930년대 조선성악연구회 활동

박종화(朴鍾和) 1901–1981 月灘(월탄)
소설가, 시인. 서울 출생. 시, 소설, 평론을 집필, 한국문학가협회 초대 회장, 성균관대 교수 역임, 『금삼의 피』, 『임진왜란』, 『세종대왕』 등

박화목(朴和穆) 1924–2005
아동문학가. 황해도 출생. 서울중앙방송국 문예담당 프로듀서,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회 분과 회장 역임, 소설 『부엉이와 할아버지』, 『마징가의 꿈』, 『개똥벌레 삼형제』 등

박화성(朴花城) 1904–1988 素影(소영)
소설가. 전남 목포 출생. 한국문인협회 창립이사,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회장 역임, 『백화』, 『고향없는 사람들』, 『순간과 영원사이』 등

배정국(裵正國)
서화가, 수필가. 백양당 설립 운영

백성규(白成珪) 1919–2013
무용가. 서울 출생. 일본 무용계의 대부, 무용행정가, 초대 국립발레단장, 임성남, 최태지를 양성

백윤문(白潤文) 1906–1979 香塘(향당)
한국화가. 서울 출생. 후소회 창립회원, 서화협회전 참여, 〈건곤일척〉, 〈가두소견〉, 〈봄날〉 등

변관식(卞寬植) 1899–1976 小亭(소정)
동양화가. 황해 웅진 출생. 고려미술원 교수 역임, 전통적인 남화계에 독특한 적묵법 구사, 〈외금강 삼선암〉, 〈내금강 진주담〉, 〈이어〉 등

변종하(卞鐘夏) 1926–2000 石隱(석은)
화가. 경북 대구 출생. 195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통령상, 수상홍익대학교 · 수도여자사범대학 · 서울대학교 교수, 〈돈키호테〉, 〈서정적풍경〉, 〈우화〉 시리즈 등

서세옥(徐世鈺) 1929– 山丁(산정)
동양화가. 대구 출생.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점의 변주〉,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등

서종택(徐宗澤) 1944–
소설가. 전남 장흥 출생.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야객』, 『공작원』, 『지방산』 등

손재형(孫在馨) 1903–1981 素田(소전)
서예가. 전남 진도 출생.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최장, 예술원 부회장 역임, 소전체를 완성, 〈진해이충무공동상명〉, 〈육체사육신묘비문〉, 〈이충무공벽파진전첩비문〉 등

송지영(宋志英) 1916-1989 雨人(우인)
소설가,언론인. 평북 박천 출생.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예진흥원장, 제11대 국회의원,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역임, 『젊은날의 노래』, 『청등야화』, 『천풍』 등

송영수(宋榮洙) 1930-1970
조각가. 서울 출생. 서울대 미대교수 역임, 〈육군사관학교 조형물〉, 〈경부고속도로준공탑〉, 〈사명대사상〉 등

송하춘(宋河春) 1944-
소설가. 전북 김제 출생.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은장도와 트럼펫』, 『하백의 딸들』, 『소설발견』 등

신관웅 1946-
피아니스트. 충남 서천 출생. TBC, KBS 전속 단원, 신관웅 빅밴드 단장,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단원, 대한민국 재즈1세대밴드 리더

신동문(辛東門) 1928-1993
시인, 출판인. 충북 청주 출생. 《새벽》 편집장, 《창작과 비평》대표, 『수정화병에 꽂힌 현대시』, 『조건사초』, 『풍선과 제3포복』 등

안기영(安基永) 1900-1980
성악가. 충남 청양 출생. 홍난파, 현제명과 함께 활동.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1929년 〈안기영 작곡집 제1집〉 출판, 전통적인 설화를 오음계로 구사하여 안기영류 가극 형성

안익태(安益泰) 1906-1965
지휘자, 작곡가. 평양 출생. 미국신시내티 교향단 동양 최초의 첼로주자, 〈애국가〉작곡, 독일 등지에서 지휘자로 활동

양주동(梁柱東) 1903-1977 无涯(무애)
국문학자 · 시인. 경기도 개성 출생. 고시가 · 향가 해독과 주석 연구, 연세대 · 동국대 교수 역임, 『조선고가연구』, 『여요전주麗謠箋注』, 『국학연구논고』 등

염상섭(廉想涉) 1897-1963 橫步(횡보)
소설가. 서울 출생. 『경향신문』 편집국장, 서라벌예대 초대학장, 『삼대』, 『만세전』,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오경심(吳敬心) 1914-??
성악가. 평양 출생. 경성음악전문학원 강사,1938년 조선일보사 주최 1회 신인음악회 출연, 전조선작곡발표대음악제 노래, 사모곡 〈영구차〉 노래

오상원(吳尙源) 1930-1985
소설가. 평북 선천 출생. 1955년 『유예』로 등단, 동아일보 활동, 『모반』, 『백지의 기록』, 『황선지대』 등

오탁번(吳鐸藩) 1947-
소설가, 시인. 충북 제천 출생. 계간지 《시안》 창간, 『아침의 예언』 『너무 많은 가운데 하나』『겨울강』 등

유기룡(劉起龍) 1911–1990 海史(해사)
판소리, 이론가. 전남 곡성 출생. 대한국악원 총무국장,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역임, 「판소리의 유파적 고찰」, 농악12차와 가락 조사

유치진(柳致眞) 1905–1974 東朗(동랑)
극작가. 경남 통영 출생. 국제연극협회(ITI) 한국본부 위원장 역임, 서울예술전문대 전신인 드라마센터 아카데미 설립,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 〈빈민가〉, 〈논개〉 등

윤기선(尹琦善) 1921–2013
피아니스트.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윤치호 아들, kbs교향악단, 국향, 서울시향과 협연

윤이상(尹伊桑) 1917–1995
작곡가. 경남 산청 출생. 독일에서 활동, 1972년 뮌헨올림픽 오페라 〈심청〉 작곡, 유럽현존5대 작곡가 · 20세기 100년간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으로 선정

이관구(李寬求) 1898–1991 誠齋(성재)
언론인. 서울 출생. 경향신문사 부사장, 한국신문연구소 소장 역임, 「보석 지연의 희생」, 「제남사건의 벽상관」, 『하루살이 글 한평생』 등

이광수(李光洙) 1892–1950 春園(춘원)
소설가. 평북 정주 출생. 1917년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 발표(매일신문 연재), 『흙』, 『단종애사』, 『유정』 등

이광암
한학자

이기우(李基雨) 1921–1993
전각가. 서울 출생. 무호 이한복과 위창 오세창을 사사, 전각과 서예의 현대화를 위해 힘씀, 한국전각협회 회장, 『철농인보(鐵農印譜)』(3권) 발간

이병기(李秉岐) 1891–1968 嘉藍(가람)
국문학자, 시조시인. 전북 익산 출생. 조선어문연구회 · 시조회 활동, 서울대 · 전북대 교수 역임, 『가람시조집』, 『국문학전사』, 『가람문선』 등

이상춘(李想春) 1910–1991
성악가. 충남 부여 출생.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부교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 역임, 오페라 〈춘향전〉, 〈왕자호동〉, 〈팔리아치〉 등

이숭녕(李崇寧) 1908–1994
국문학자. 서울 출생. 서울대 · 한양대 교수 · 국학연구원장 역임, 『조선어음운론연구』, 『국어학개설』, 『신국어학사』 등

이승학(李升學) 1908–
성악가 · 음악평론가. 함북 명천 출생. 경성음악전문학원 교수,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역임, 나운영 등과 『초등노래책』 발간, 19448년 정부수립 직후 음악술어 제정 참여, 『음악세계』 평론 게재

이유태(李惟台) 1916-1999 玄艸(현초)
한국화가. 서울 출생.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여인〉, 〈가야심추〉, 〈강산무진〉 등

이유선(李宥善) 1911-2005
성악가. 평양 출생.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중앙대학교 교수 역임, 저서 『한국양악백년사』, 가곡 『 가는 길』, 『부름 받은 몸』 등

이은상(李殷相) 1903-1982 鷺山(노산)
작사가, 사학자. 전주 출생. 이화여자전문대학교 교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가곡 〈고향생각〉, 〈가고파〉, 〈성불사의 밤〉 작사

이인범(李仁範) 1914-1978
성악가. 평북 용천 출생. 한국오페라단 단장,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카나〉, 〈토스카〉, 〈카르멘〉 출연

이인선(李寅善) 1907-1960
성악가-테너. 평양 출생. 한국 오페라 개척자, 국제오페라사를 창설, 오페라 〈춘희〉, 〈카르멘〉 등 작품 출현

이종환(李鐘桓) 1920-1978
소설가. 경북 월성 출생.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청준광야』 ,『사도전서』, 『갈메기의 노래』 등

이주형(李注衡) 1945-
국문학자. 경북 안동 출생.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역임, 『채만식전집』, 『한국근대소설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연구』 등

이준(李儁) 1859-1907
독립운동가. 함남 북청 출생.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 개혁당, 대한협동회, 헌정연구회, 국민교육회 활동, 1907년 헤이그특사단으로 파견되어 순국

이태준(李泰俊) 1904- 尙虛(상허)
소설가. 강원 철원 출생.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 역임, 『아무일도 없소』, 『사상의 월야』, 『가마귀』 등

이헌구(李軒求) 1905-1982 宵泉(소천)
문학평론가 · 불문학자. 함북 명천 출생. 극예술연구회 창립동인, 민중일보 사장,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장 역임, 『문화와 자유』, 『모색의 도정』, 『사회학적 예술비평의 발전』 등

이흥렬(李興烈) 1909-1980
작곡가 · 피아노. 함남 원산 출생. 한국음악가협회 중앙위원, 고려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작곡가협회장 역임, 〈바위고개〉, 〈어머니의 마음〉, 『꽃동산』, 『이흥렬작곡집』 등

이희승(李熙昇) 1896-1989 一石(일석)
국문학자. 경기도 시흥 출생. 조선어학회 활동(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조선말큰사전), 이화여대 · 서울대 교수 역임, (재)일석학술재단 설립

임동창 1956–
피아니스트. 전북 군산 출생. 클래식과 국악을 접목한 케이클래식K-Classic 활동, 풍류학교 설립, 〈영산회상〉, 〈1300년의 사랑이야기〉, 〈임동창 풍류, 허튼가락〉 등

임원식(林元植) 1919–2002
지휘자, 작곡가. 평북 의주 출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오페라 〈춘희〉, 〈카프멘〉, 〈왕자호동〉 지휘,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장발(張勃) 1901–2001 雨石(우석)
서양화가, 인천 출생. 서울대학교 미대 창립주도, 학장, 중앙대학교 교수 역임, 〈12사도상〉, 〈성 김대건 신부상〉, 〈작품A〉

장사익(張思翼) 1949–
가수, 국악인. 충남 홍성 출생. 태평소, 대금 등 국악연주로 시작, 1995년 〈하늘 가는 길〉로 가수 데뷔. 〈찔레꽃〉, 〈봄날은 간다〉 등

장운상(張雲祥) 1926–1982 木佛(목불)
화가, 강원 춘천 출생. 동덕여자대학교 미술과 교수, 〈전설〉, 〈아〉, 〈운〉

전영경(全榮慶) 1926–2010
시인. 함남 북청 출생. 1955년 시 「선사시대」로 등단, '주막' 동인, 동덕여대 · 이화여대 교수 역임, 『김산월 여사』, 『나의 취미는 고독이다』, 『어두운 다리목에서』 등

전화황(全和凰) 1909–1996
화가. 평남 안주 출생. 일본에서 활동, 〈갓난이의 매장〉, 〈미륵보살〉. 〈관음만다라〉 소설 『갓난이의 매장』 간행

정규(鄭圭) 1923–1971
화가.도예가. 강원도 고성 출생. 모던 아트협회와 한국판화가협회 활동, 이화여자대학, 홍익대학 교수 역임, 『농촌』, 『곡예』 등

정비석(鄭飛石) 1911–1991
소설가. 평북 의주 출생. 매일신문 기자, 중앙신문 문화부장,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위원장 역임, 『성황당』, 『소설 삼국지』, 『소설 초한지』 등

정인보(鄭寅普) 1893–1950 爲堂(위당)
역사학자, 교육자. 서울 출생. 동아일보 논설 위원, 국학대학 학장, 전 조선문필가협회 회장 역임, 『조선사연구』, 『담원국악산고』, 『양명학연론』 등

정인영(鄭麟永) 1933–2013
소설가. 충북 옥천 출생. 1957년 현대문학 등단, 『아담의 한계』, 『교묘한 영지』, 『손자』 등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시인. 충북 옥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부 교수, 경향신문사 주간 역임 시, 〈향수〉, 〈호수〉, 〈유리창에서〉 등

정한모(鄭漢模) 1923-1991 一茅(일모)
소설가. 충남 부여 출생. '주막' 동인, 서울대 교수,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카오스의 사족』, 『아가의 방』, 『현대작가연구』 등

정호웅(鄭豪雄) 1959-
국문학자. 경남 진주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역임,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한국 문학의 근본주의적 상상력』, 『한국 현대소설사론』 등

정희석(鄭熙錫) 1917-2002
바이올린 연주가, 지휘자. 서울 출생. 이화여대 음대 교수, 해군정훈음악대 대장 역임, 〈오프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디오와 에네아스〉, 〈마적〉 등 지휘

조남현(曺南鉉) 1948-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인천 출생.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현대문학회 회장 역임, 『소설원론』, 『문학의 정신적 자취』, 『한국 현대문학사상의 발견』 등

조병옥(趙炳玉) 1984-1960 維石(유석)
독립운동가, 정치인. 충남 천안 출생. 신간회 창립위원, 미군정청 경무부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역임

조상현(曺祥鉉) 1923-2010
성악가-바리톤, 강원도 강릉 출생. 한양대 음대교수 역임, 국립중앙극장, 호암아트홀,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 · 국문학자, 경북 영양 출생.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위원, 『고풍의상』, 『승무』, 『청록집』 등

조택원(趙澤元) 1907-1976
무용가, 함남 함흥 출생.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최고위원 역임, 금관문화훈장, 〈학〉, 〈만종〉, 〈가사호접〉 등

지영희(池瑛熙) 1909-1979
국악. 경기도 평택 출생.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 역임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작곡가, 바이올린 연주가. 전남 보성 출생. 고려음악협회 협회장, 국립국악원 이사 역임, 가곡 〈고향〉, 〈모란이 피기까지는〉, 〈고향〉 작곡

최원식(崔元植) 1949
국문학자. 인천 출생. 인하대 국문과 교수,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 역임, 평론집 『민족문학의 논리』, 『한국근대소설사론』,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등 간행

최인훈(崔仁勳) 1936-
소설가. 함북 회령 출생. 서울예술대학 교수, 2011년 제1회 박경리문학상 수상, 『광장』, 『화두』, 『총독의 소리』 등

최종태(崔鍾泰) 1932–
조각가. 충남 대덕 출생. 김종영미술관 관장,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대 · 이화여대 교수 역임, 저서 「예술가와 역사의식」, 「형태를 찾아서」 등

최창은(崔昌殷) 1913–1991
성악가–테너, 음악교육자. 서울 출생. 경성음악전문학원 강사, 서울시음악동맹위원장, 인민군예술학원장 역임, 홍난파 가곡 〈고향생각〉, 〈입담은 꽃봉오리〉, 〈금강산에 살으리랐다〉 등

한주환(韓周煥) 1904–1966
국악인. 전남 화순 출생. 조선성악연구회 활동. 임춘앵국극단 단원. 박종기에 사사. 한주환류 대금산조 창시, 1971년 성음사 제작 음반 『호적과 대금산조』 취입

한운사(韓雲史) 1923–2009
방송극작가. 충북 괴산 출생. 한국일보 문화부장, KBS 이사 역임, 「아낌없이 주련다」,「하얀까마귀」, 「빨간 마후라」 등

황순원(黃順元) 1915–2000
소설가. 평남 대동 출생.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소설가, 『소나기』, 『나무들 비탈에서다』, 『움직이는 성』 등

현제명(玄濟明) 1902–1960 玄石(현석)
성악가–테너, 작곡가. 대구 출생. 서울 음대교수, 조선음악가 협회 이사장 역임, 〈절름발이〉, 〈고향생각〉, 〈나물캐는 처녀〉 등 작곡

참고문헌

▣ 그림, 사진 ▫ 인용문

표지 ▣ 김종영, 〈산동네 풍경〉, 1973, 38.5×53.5cm, 종이에 수채, 김종영미술관 제공
간지 ▣ 장우성, 〈중추〉, 1981, 70×92cm, 종이에 채색,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제공

마을이야기
6쪽 ▫ 우산거사藕山居士,「한성풍토기漢城風土記」,『대동학회월보 제19호』, 1909.8.25.
7쪽 ▫ 김종직,「동소문 아래 윤정 효손의 집에 옮겨살다移居東小門下尹正孝孫家」,『점필재집』 시집제6권, 1520.
8쪽 ▣ 공유마당 홈페이지 http://gongu.copyright.or.kr
9쪽 ▫『승정원일지』 순조16년 신축, 1816.3.21.
10쪽 ▫ 〈영어학교 교사와 학도들이 이달 이튿날 동소문밖으로 화류를 갔다니〉, 독립신문, 1896.5.5.
11쪽 ▣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http://www.kfa.or.kr
11쪽 ▫ 〈김은신의 이것이 한국최초(3) 1906년의 축구경기〉, 경향신문, 1996.5.2.
13쪽 ▫「상이 희정당에 거둥하여 기청제와 진휼책, 고과에 대한 의논을 듣다」,『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 1662.6.20.
14쪽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
16쪽 ▫ 정한숙,「성북구 성북동」,《한국문학》, 1982.2.
17쪽 ▣ 김종영, 〈삼선동 풍경〉, 1973, 30×37cm, 종이에 펜과 수채, 김종영미술관 제공

장우성
20쪽 ▫ 장우성,「선친께서 지어 주신 월전」,『월전수상』, 2011, 열화당, 43~45쪽
21쪽 ▣ 장우성, 〈해빈소견〉, 170×140cm, 종이에 채색, 1932,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제공
23쪽 ▫ 장우성,「한국화의 방향」,『화맥인맥』, 컬처북스, 2013, 169쪽
24쪽 ▫ 장우성,「부산 피난 시절」,『화맥인맥』, 컬처북스, 2013, 225쪽
25쪽 ▫ 〈한국의 성모와 성모복자〉, 201×136cm, 종이에 채색, 1949, 로마 바티칸 교황청 소장, 장우성,『화맥인맥』, 컬처북스, 2013, 176쪽
26쪽 ▣ 장우성,「워싱턴 동양예술학교」,『화맥인맥』, 컬처북스, 2013, 317쪽
29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김종영
32쪽 ▫ 김종영,「인간 각백을 말함」,『초월과 창조를 향하여』, 열화당, 1993, 18쪽
33쪽 ▫ 장우성,「풀린 오해」,『화맥인맥』, 컬처북스, 2013, 277쪽
34쪽 ▫ 김종영,「불각의 미」,『초월과 창조를 향하여』, 열화당, 1993, 30쪽
35쪽 ▫ 김종영,『초월과 창조를 향하여』, 열화당, 1993, 8쪽
35쪽 ▣ 〈무제Untitles〉, 1970년대 후반, 35×25cm, 종이에 펜,먹,『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국립현대미술관, 2005, 166쪽

35쪽 ▣ 〈Work79-7〉, 1979, 33×34×26cm, 나무,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국립현대미술관, 2005, 167쪽
36쪽 ▫ 최종태,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 가나아트, 1999, 12쪽
36쪽 ▣ 최종태,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 가나아트, 1999, 12쪽
37쪽 ▣ 김종영, 〈삼선동 풍경〉,1976, 52×38cm, 종이에 수채/ 최종태,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 가나아트, 1999, 53쪽
39쪽 ▣ 김종영미술관 제공

전광용
41쪽 ▫ 전광용, 「청년 시절을 향한 문학」, 《소설문학》, 1983.7; 『전광용전집』6, 2011, 72쪽
42쪽 ▣ 정지태 제공
44쪽 ▣ 전광용, 「창과 벽 외 : 전광용선집」, 선일문화사, 1975
44쪽 ▫ 전광용, 「구슬이 서말이라도」, 《현대한국문학전집5》, 신구문화사, 1968, 488쪽
46쪽 ▫ 전호경 인터뷰
47쪽 ▣ 전광용, 「창과 벽 외 : 전광용선집」, 선일문화사, 1975
48쪽 ▫ 전광용, 「두고 온 고향」, 《신동아》, 1971.1; 『전광용전집6』, 2011, 109~110쪽
48쪽 ▫ 전광용, 「나의 학문과 생활」, 『전광용전집6』, 2011, 24쪽
49쪽 ▣ 전호경 제공

이관옥
53쪽 ▫ 〈신진 음악가 순례기-성앙가 이관옥양〉, 《조광》, 1938.9.
54쪽 ▣ 한상우, 『한국양악인물사1-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2003, 177쪽
56쪽 ▣ 이복련 제공
57쪽 ▣ 한상우, 『한국양악인물사1-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2003, 178쪽
58쪽 ▣ 한상우, 『한국양악인물사1-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2003, 177쪽
58쪽 ▣ 〈소프라노 이관옥 애창곡집〉

한규동
62쪽 ▣ 이복련 제공

전봉초
65쪽 ▫ 전봉초, 「사탄의 자식」, 『농현오십년낙수』, 월간문학출판부, 1988, 207쪽
66쪽 ▣ 이복련 제공
69쪽 ▣ 이복련 제공
70쪽 ▣ 이복련 인터뷰
72쪽 ▫ 「연주가의 책임을」, 『농현오십년낙수』, 월간문학출판부, 1988, 168쪽
73쪽 ▣ 이복련 제공

이봉수
74쪽 ▣ 이봉수 바이얼린 독주회 팜플렛,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국제문화회, 1975.10.22.

정한숙
77쪽 ▣ 정한숙기념관 제공
78쪽 ▫ 정한숙, 〈기수의 잠언〉, 동아일보, 1957.4.10.
79쪽 ▣ 정한숙기념관 제공
80쪽 ▣ 정한숙기념관 제공
81쪽 ▫ 정한숙, 〈하루 서른 장〉, 동아일보, 1957.1.13.
82쪽 ▣ 정한숙기념관 제공
83쪽 ▫ 정한숙, 「입추가 지난 어느 날 밤」, 『꿈으로 오는 고향내음』, 해문출판사, 1988, 16쪽
84쪽 ▣ 정한숙기념관 제공

안동림
88쪽 ▫ 〈 '우리시대 마지막 르네상스인' 안동림 별세〉, 뉴시스, 2014.7.10.
89쪽 ▣ 현암사 제공
89쪽 ▫ 안동림, 『이 한 장의 명반』, 현암사, 1988
91쪽 ▣ 〈클래식 비평가 이상의 애호가, 안동림〉, 데일리한국 2009.7.15
91쪽 ▫ 〈안동림 "아리아는 클래식음악 사랑의 종착역" 〉, 연합뉴스, 2011.4.6

이어령
95쪽 ▣ 이어령 제공
96쪽 ▣ 이어령 제공; 『생명 그리고 동행』, 영인문학관, 2014, 70쪽
98쪽 ▫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 마로니에북스, 2014.
99쪽 ▫ 이어령 인터뷰
101쪽 ▣ 이어령 제공; 『생명 그리고 동행』, 영인문학관, 2014, 66쪽
101쪽 ▫ 이어령 인터뷰
104쪽 ▣ 영인문학관 제공

이생강
108쪽 ▫ 이생강 인터뷰
108쪽 ▣ 『명인에게 길을 묻다』, 민속원, 2005, 216쪽
110쪽 ▣ 『명인에게 길을 묻다』, 민속원, 2005, 224쪽
111~113쪽 ▫ 이생강 인터뷰
113쪽 ▣ 이생강대금전수소 제공
115쪽 ▣ 이생강대금전수소 제공
116쪽 ▣ 장병욱, 『다시, 길을 떠나다』, 소화, 2010, 31쪽.
116쪽 ▫ 이생강 인터뷰

이호철
119쪽 ▫ 이호철, 「기기묘묘한 만남들」, 『문단골 사람들』, 프리엄북스, 1997, 231쪽
120쪽 ▣ 이호철 홈페이지 http://www.leehochul.com
120쪽 ▫ 이호철, 「첫 취직」, 『문단골 사람들』, 프리엄북스, 1997, 235~236쪽

122쪽 ▣ 김종영, 〈동소문고개Hill〉, 1933, 49×64cm, 캔버스에 유화,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국립현대미술관, 2005, 178쪽

조사개요

도움주신 분(가나다순)

박춘호 이복련 이생강 이어령 이호웅 장학구 전미영 전호경 정지태 최문규 최종태

자료협조

김종영미술관, 영인문학관, 이천시립원전미술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현암사

발　　행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혜곡최순우기념관)

사 업 기 간 : 2014. 8. 1.~2015. 1. 20.

기획 · 원고 : 송지영, 심지혜

진 행 보 조 : 박원식

제　　작 : 연두와 파랑

디　자　인 : 여순임

발　행　일: 2015. 1. 20.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 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 성북동), (전남 나주 다도면), (서울 동선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126-20번지)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삼선동·동소문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　　행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혜곡최순우기념관)
기획 · 원고 : 송지영, 심지혜
진 행 보 조 : 박원식
제　　작 : 연두와 파랑
디 자 인 : 여순임
발 행 일 : 2015. 1. 20.